24일 Market Index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금리(국고채 3년) 3.509 (+0.012)
환율(원·달러) 1369.20 (-9.10)

metro® 경제

한강 위 떠잇는 호텔 짓는다 서울시 5500억 투입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가성비 으뜸 '다이소' 수익 위해 환경 뒷전

'국민가게' 다이소로 잘 알려진 아성다이소가 지난해 연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수익성까지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아성다이소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비결로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이소가 가성비를 앞세운 나머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플라스틱 제품 위주로 제품을 판매해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2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해 3조4604억원의 매출에 26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5%와 9.4%가 증가한 수치다. 매출은 2021년 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21년 2838억원에서 2022년 2393억원이다.

아성다이소 매출 고공행진
지난해 영업이익률 7.6%
ESG는 상대적으로 소홀
플라스틱컵·일회용접시 등
유해물질 기준량 초과 검출

수익성은 더욱 눈여겨 볼만하다. 다이소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약 7.6%로 이마트(약 1.1%), 롯데마트(약 3.5%), 쿠팡(약 1.9%)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처럼 아성다이소의 매출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ESG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유통업체들의 경우 전 세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ESG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아성다이소는 매출 3조원을 넘겼지만 아직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상품을 판매했다가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약 600배 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량 회수했고, 지난해말에는 종이 빨대, 욕실 슬리퍼,

다이소 매장 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플라스틱 제품이다. /최빛나 기자

어린이 장난감 등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일회용 접시 10개입, 16개입 등 2종에서도 총용출량이 초과 검출됐다. 총용출량이란 제품의 유해 성분인 폴리프로필렌 등이 액체에 녹아 나올 수 있는 양을 뜻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온다는 의미다.

지난달에는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량을 훌쩍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중국산 'PP컵' 280㎖로, 총용출량이 기준치인 1리터당 30㎎을 2.5배 웃도는 74㎎이 검출됐다.

더군다나, 품질 논란이 있었던 상품 대부분이 아성다이소의 모회사인 아성HMP의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어린이 장난감, 욕실슬리퍼 등은 ㈜아성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아성과 아성HMP는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의 차녀인 박영주 아성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다이소는 3만 가지가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매월 수백 개가 넘는 상품을 새로 내놓는다. '더 싸고 좋은 상품'을 위해 700개가 넘는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에 불량제품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업계 내 동정론도 있다.

하지만 2022년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은 자서전에서 "1개의 불량제품은 고객에게 100% 불량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고금리 장기화… 은행 대출 연체율 또 상승

2월말 원화대출 연체율 0.06%p ↑
기업 0.09%p , 가계 0.04%p 올라
은행권, 건전성 위해 대출문턱 높여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국내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 추이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기업은 물론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연체율이 오르면서 고신용자도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에 따르면 2월 원화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p) 상승한 0.51%를 나타냈다. 이는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2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과 동일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0.04%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의 연체율 규모 상승 폭이 가계대출보다 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9%p 오른 0.59%였다. 대기업대출(0.18%)과 중소기업대출(0.70%)이 각각 0.06%p, 0.10%p씩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6%를 기록했다. 이는 0.14%p 오른 것으로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5%p 상승한 0.61%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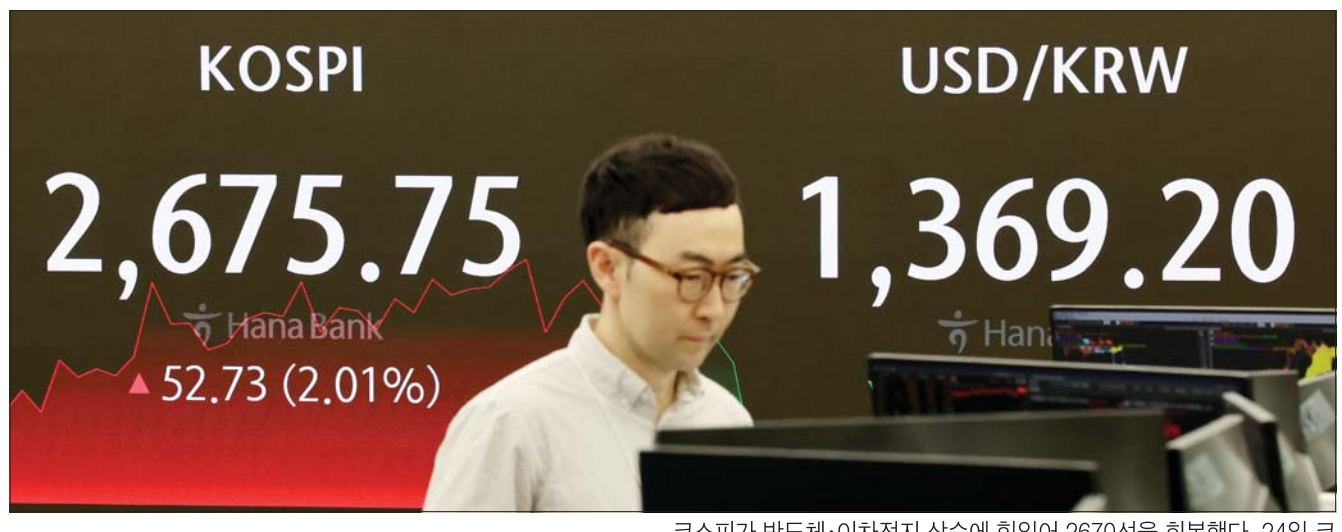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 말(0.38%) 대비 0.04%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84%로 0.10%p 올랐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이전 대비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작년말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214.0%, 16.56%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고금리 장기화 예고에 고신용자도 신용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스피, 반도체·이차전지株 반등에 2670선 회복 코스피가 반도체·이차전지 상승에 힘입어 2670선을 회복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오른 2675.7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45.44)보다 16.79포인트(1.99%) 상승한 862.23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글로벌 오가노이드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

오늘 ODC24 '차세대 노멀' 컨퍼런스
빈 산하 빈멕 국제병원과 동시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인다. 장 오가노이드와 침샘 오가노이 재생치료제를 세계 처음 인체에 투여한 글로벌 전문가들도 모두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채택된 가운데 한국 오가노이드 기술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ODC조직위원회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차바이오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ODC24 '차세대 노멀: 오가노이드와 함께하는 삶(The Next Normal : Living With Organoids)'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차를 맞는 ODC24는 예년과는 다르게 ODC조직위원회가 운영한다.

ODC조직위원회는 국내 첫 오가노이드 기반 기술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한국줄기세포학회, 베트남 빈멕(Vinmec)국제병원, 글로벌 동물대체시험 플랫폼 람다 바이오로직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컨퍼런스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상용화, 오가노이드 기술의 잠재력, 오가노이드의 실제 활용 사례, 동물실험 대체(Animal-free) 솔루션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ODC24는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Vin) 그룹 산하 빈멕 국제병원과 동시에 개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우선 침샘 오가노이드를 개발한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 대학 의료센터의 로버트 콥스(Robert Coppes) 교수가 참석한다. 콥스 교수 연구팀은 침샘 재생치료제를 개발, 침샘 기능 저하 환자 대상 인체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조정식 "尹 거부권 남발에 국회 무력화… 엄중한 경고 필요" /사진 뉴시스

▲ 민주, 조국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사실상 거절… 조국당 "깊이 고민해달라"

▲ "총선에서 지지후보 떨어져 우울"… 'PESD' 주의보

▲ 정진석 "'관계자발' 산발적 메시지 지양하라… 비서가 할일은 대통령 보좌"

▲ 이재명 "국민 두명 중 한명 채 상병 특검 찬성… 진상규명 시작해야"

▲ 尹 대통령, 신임 합참차장 삼정검 수치 수여 /사진 뉴시스

서울시, 한강 위 떠있는 호텔 짓는다… 7년간 5500억 투입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오세훈 시장 "수상 이용 활성화 먹고 자는 일상공간 자리매김"

케이블 수상스키장 조성하고 선박계류시설 1000석까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리버시티, 서울 종합 계획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총 5501억원(민간 3135억원·재정 2366억원)을 들여 한강에 수상복합 인프라를 설치해 시민 천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상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강의 수상 이용을 활성화해 세계적인 수변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특별한 날, 주말에만 가는 곳이 아닌 먹고 자는 일상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한강을 여가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한강을 성장의 거점, 다시 말해 경제 발전의 터전으로 삼을 것"이라며 "수상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한강을 일상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수상호텔·오피스·푸드존을 만들고,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리버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상호텔은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시설로 조성한다. 숙박·여가·컨벤션 기능을 갖춘 수상호텔에서 투숙객에게 선박 픽업, 유람선 투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사한다는 복안이다. 한강의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일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게 수상오피스를 띄우고, 강의 아름다운 조망을 배경으로 공연 문화를 즐기는 먹거리 랜드마크 수상푸드존도 마련한다.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오가는 리버버스는 오는 10월부터 한강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올 7월 이용이 저조한 수상택시를 없애고 소규모의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한강을 여가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누구나 한강에서 수상스키를 체험할 수 있게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만들고,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케이블 수상스키장은 보트에 줄을 달고 타는 기존 방식이 아닌, 높은 탑처럼 설치된 케이블을 활용해 수상스키를 즐기는 시설이다. 간단한 장비만 착용하면 초보자도 안전하게 탈 수 있으며, 다양한 묘기 연출이 가능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한강 내 노후시설물 정비시 연면적과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한강 내 유휴 도선장 26개소 가운데 14곳(54%)이 20년 이상됐다"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노후시설물 개선을 유도,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선박 계류시설과 마리나 복합시설 확대로 한강을 도시 성장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 시민이 증가하는 '마이보트 시대'에 대비해 현재 130선석에 불과한 선박 계류시설을 단계적으로 1000선석까지 늘리고,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인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 더해 이촌과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지어 수상복합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일상 공간·여가 중심·성장 거점 조성을 골자로 하는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6445억원의 생산파급효과, 2811억원의 부가가치효과, 6845명의 취업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강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10여년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큰 반발에 부딪혔던 부분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한강의 친환경적 수변생태계는 매우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공호안이 자연형호안으로 바뀌며 전체 57.1km 중 약 83%인 47.5km 구간이 복원됐다"며 "나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38만주 더 식재됐고,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해져 수달 가족이 노닐면서 청계천변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수상 이용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반환경적인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태계 복원으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밤섬 일대에선 선박을 150m 이상 이격해 운항하고 유람선의 속도도 8노트 이하로 관리하는 등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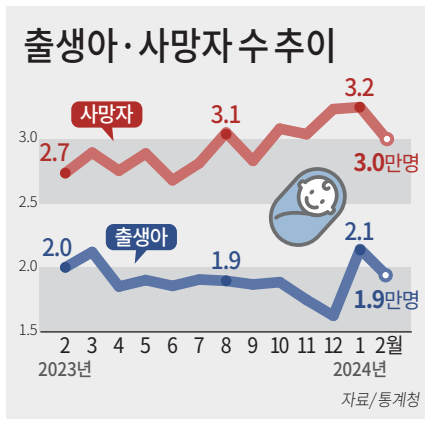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출생아 수 16개월 째 줄어 2만명 아래로

통계청, 2월 인구동향

출생아 수 1만9362명, 3.2% 줄어

'사망 〉 출생' 1만615명 자연감소



올해 2월 출생아수가 전년동월대비 줄어들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보여 인구 자연감소분이 1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96건(-5.0%) 줄었다. 2021년 1월 이후 월 2만 건을 밑돌던 혼인 건수가 올해 1월 2만 선을 회복했으나 다시 밑돌았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2건으로 전년보다 0.3건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구와 전북 등 3개 시도에서 혼인이늘어난 반면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전년보다 128건(1.8%)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지난해 2월과 같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혼 건수는 올해 2월이 지난해 2월 대비 하루 더 많은 영향으로 1월에 급증하고 2월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2월을 합산하면 조혼인율은 3.3, 조이혼율은 5.7로 평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월 출생아수는 1만936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다 올해 1월 2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만명대로 떨어졌다. 전년 같은 달 대비 2015년 11월(3.4%)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 2022년 9월 13명(0.1%) 소폭 늘어난 후 다시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사망자 수 증가폭은 2월 기준 역대 최대다. 2월 사망자 증가율은 지난 2022년 9월(13.9%) 이래 18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1만615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내일 KRX서 '재생치료제 포럼' 열어

〉〉 1면 '글로벌 오가노이드'서 계속

류이치 오카모토 도쿄 의과치과대학(TMDU) 교수 역시 한국을 찾는다. 류이치 교수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를 개발, 지난해 난치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세계 최초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유럽 바이오테크계의 거물'로 꼽히는 안드레 거스 대표도 참석한다. 그는 세계 최초의 동물대체시험 플랫폼 랍다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으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첫 파트너사로 선정한 바 있다.

ODC조직위원회는 "ODC는 세계를 대표하는 오가노이드 개발자들의 모임으로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의 오가노이드 기술력이 글로벌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6일에는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주최로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이 열린다.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짚어볼 전망이다.

이 포럼은 오가노이드의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을 중점으로 다룬다.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며 다양한 정부 지원과 함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형구 미리어드생명과학 이사가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의 주제로 맡는다. 미리어드생명과학은 제약·바이오 특화 전략자문사로 바이오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출범 유망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기획, 발굴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다이소 "플라스틱·과포장 축소활동 진행"

〉〉 1면 '가성비 으뜸 다이소'서 계속

업계에서는 다이소만의 환경, 품질을 위한 활동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다양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물가 등 국가경제가 힘들때 국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다이소가 보다 적극적인 ESG활동을 강화할 때가 됐다. 국내 토종 기업인 다이소가 국내 환경과 유통업계를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경영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플라스틱 포장으로 된 상품들을 종이재질로 변경하거나 과포장을 축소하는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포장재 개선 활동을 통해 작년에는 총 800여 종의 상품 포장 개선을 진행했으며 약 96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의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이소는 1997년 서울 천호동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1519군데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과 경기도 용인의 물류센터에 이어, 최근 안성 물류센터를 새롭게 임대했으며 2026년 말까지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세종시에 허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순 기존 '다이소몰'과 '샵다이소'를 통합한 새로운 다이소몰을 열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익일배송 서비스 등 온라인 영업도 강화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연체채권 정리 강화… 3월 연체율 하락 전망

〉〉 1면 '고금리 장기화…'서 계속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가계신용대출(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취급 신용점수는 919.5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98.6점에 비해 20.9점이나 오른 수치다.

금감원은 3월에는 연체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 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대차, 'ST1' 공개… 캠핑·의료 등 목적따라 무한 변신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카고·카고냉동' 2종 선봬
350kW 초급속 충전기술 적용
"새로운 사업기회 만들어 낼 것"

현대차가 지난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신차 발표회를 갖고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의 물류 특화 모델 카고를 선보이고 있다.

"단순하게 이동만이 아닌 차량 운행 정보(차량 위치, 속도, 배터리 충전량 등)를 분석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시대로 전환의 첫 결과물인 ST1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ST1은 물류 특화 모델 카고와 카고 냉동이다.

샤시캡을 기반으로 한 ST1은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형태로 확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현대차는 ST1을 개발하면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 그룹 등 총 18개 물류 및 유통사와 긴밀히 협력해 배달 차량과 운전자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완성했다.

오세훈 PBV디벨롭먼트실 상무는 "국내 주요 라스트 마일 업체들과 개발 초기부터 긴밀히 협업해 현장에서의 불편 사항을 듣고 적극 반영해 개발했다"며 "6개월 간의 실증사업을 진행한 만큼 물류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ST1은 고객 비즈니스에 맞춰 차량 개발이 가능해 경찰 작전차, 응급 구조차, 캠핑카는 물론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한 전기 바이크 충전차, 이동식 스마트 팜, 애완동물 케어 숍 등 다채로운 특장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전고는 2230㎜로 낮춰 그동안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지하 주차장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낮은 스텝고(380㎜)는 적재함에 오르고 내리며 제품을 운반해야 하는 운전자의 부담을 낮췄다. 적재용량은 포터EV보다 약 14% 크다.

또 현대차는 ST1에 적용된 데이터 오픈 API를 통해 고객사 시스템으로 실시간 차량 운행 정보(차량 위치, 속도, 시동 상태, 배터리 충전량 등), 차량 운행 분석 데이터 등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해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민상기 현대차 PBV사업실장은 ST1의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스마트폰에 비유했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생태계를 조성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었다"며 "차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같은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확장경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ST1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 고객사의 앱도 서비스할 수 있다"며 "물류 운송사에서 사용하는 배송관리 시스템(TMS)도 별도의 단말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등 물류·유통사 협력
SW 기반 정보분석… 효율 극대화
카고 5980만원, 카고냉동 6815만원

현대차는 반복 승하차가 빈번한 배송 기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의성도 높였다.

운전자가 스마트 키를 소지한 후 슬라이딩 도어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스마트 워크 어웨이 기능이 적용됐다. 또 스마트키 하나로 자동으로 차량의 전진, 후진을 제어할 수 있다.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 긴 주행거리를 확보한 점도 ST1의 강점이다. ST1 카고와 냉동 카고는 모두 76.1kW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카고가 317km, 카고 냉동이 298km로 한 번 충전으로 하루 배송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초급속 충전 시스템(350kW)을 적용해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시장에 진입한 중국 전기 상용차보다 높은 경쟁력으로 지목된다.

ST1 카고와 카고 냉동의 모터 최고 출력은 160kW, 모터 최대 토크는 350 Nm으로 두 모델이 동일하며 전비는 카고가 3.6km/kWh, 카고 냉동이 3.4km/kWh이다.

ST1 판매 가격은 카고 ▲스마트 5980만원 ▲프리미엄 6360만원, 카고 냉동 ▲스마트 6815만원, 프리미엄 719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T1'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확장 가능하다. (위)이동식 스마트팜 (아래)이동식 LP바.

/손진영기자 son@

韓, 군집위성 '네온샛 1호' 발사 성공… 재난·안보 대응 선도

'네온샛' 한국판 스페이스 X 평가
초소형 위성개발 등 기술확보 기여
"3년간 지구관측 임무 수행할 것"

한반도 우주 시대를 이끌 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NEONSAT) 1호'가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 정부는 이번 군집위성이 고빈도 정밀 감시로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네온샛은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판으로 평가받으면서 국내 우주 산업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초소형군집위성 1호 '네온샛'이 오후 2시 13분과 오후 3시 44분경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한국시각 24일 오전 7시32분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민간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Electron)'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네온샛은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민간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초소형 군집위성(Satellite Constellation)은 지구관측용으로 소형 위성 여러 대를 묶은 것이다.

네온샛은 당초 7시8분57초 발사가 예정돼있었지만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위험성으로 인해 오전 7시14분56초로 미뤄졌다. 다만 기체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별돼 당초 예정 시간보다 24분 늦게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

. 네온셋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가 안보와 재난 대응에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 총 11대로 구성돼있으며 군집 운용을 통해 500㎞ 고도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기존 중대형 위성과 달리 높은 해상도로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지역 촬영이 가능하다. 이에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감시하고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초소형위성 개발, 초소형 위성용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 등 새로운 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요 공공분야에서 필요한 위성영상 수요를 대부분 충족해 해외 영상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6월에 5기, 2027년 9월에 5기를 추가로 발사해 초소형 위성 총 11대가 군집을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5월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2,315억 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군집위성 11기는 3년간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한다"며 "국내 우주시스템 개발의 양산체계 공정 구축 등 민간 주도 우주 산업화 생태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티에스'(BTS)란 임무명이 붙은 이번 1회기 발사는 총 11기 군집위성 체계 구축을 위한 첫번째 단계다. 1호기의 적응 테스트를 바탕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성능을 보완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씩 추가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고물가 시대' 카드사, 할인·무제한 적립 등 민생 마케팅 확대

신한 '딥오일', 주유소 최대 10%↓
삼성 'iD에너지', 통행료 등 결제일 할인
우리 '디어쇼퍼' 쇼핑 5% 무제한 적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장기화로 신용카드사도 민생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마트, 쇼핑몰, 주유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늘리는 중이다. 매달 많게는 1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물가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필수템'이 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2.46이다. 전월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농식품, 공산품, 전력과 가스비 등 공과금이 오른 영향이다. 이어 이달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1원이다. 5개월 만에 1700원대를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장기화 조짐에 신용카드사도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 주유금액 할인은 '필수'

신한카드의 '딥오일(Deep Oil)' 카드는 가입자가 직접 고른 주유소에서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정유사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주유특화 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거주지 인근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 1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월 실적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만원까지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연회비가 1만원(국내전용), 1만3000원(해외겸용)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 첫달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삼성카드의 'iD 에너지' 카드는 ▲주유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장·대리운전 이용 건에 관해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1만원 이상 주유하면 1만원 할인을 월 3회 제공한다. 삼성카드가 조사한 결제데이터에 따르면 ℓ당 평균 325원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카드는 주유와 생활영역 할인을 동시에 담았다. 전월 실적 120만원 이상 사용하면 주유금액의 10%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할인한도는 타 카드사 대비 낮지만, LPG 차량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알뜰주유소도 가맹점에 포함했다. 아울러 택시업종의 할인한도도 월 1만2000으로 책정했다.

◆ 밥상물가 부담 낮추는 카드는?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카드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연회비 15만원으로 일반카드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카드의 '디어 쇼퍼' 카드는 패션, 백화점 등 업종에서 5%를 무제한 적립할 수 있다. 특화 업종 외 적립률은 이용금액의 1%다. 연 1000만원 이상 사용하면 5만 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매년 특별 기프트도 제공한다. ▲호텔 외식이용권 10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 ▲스마일캐시 10만원 ▲H포인트 10만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연 5만원에 무제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 아워(Our) 위시' 카드로 흥행에 성공했다. 2인 이상의 생활비 소비 패턴 특화 혜택을 담아내면서다. ▲우리를 위한 선택 ▲두리를 위한 선택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한 선택'은 마트, 백화점, 동네생활 등 3개 영역 중 1개를 선택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5% 청구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이어 '두리를 위한 선택'은 ▲문화생활 ▲교육업종 ▲병원업종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10% 청구할인 혜택을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롯데마트&맥스'를 마련했다.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이면 할인한도를 5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어 5대 생활업종에서의 사용금액의 5%를 월 최대 월 2만5000원까지 할인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생활비 절감 카드는 특정 가맹점과 밀착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연회비 대비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며 "고물가 시기 합리적인 선택지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파산신청 서울시민 10명 중 8명 50대 이상

남성·1인가구 비중 가장 높아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가운데 50대 이상·남성·수급자·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센터가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 가운데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 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 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한은 "미래 경제위기 예측 가능하다"

AI·ML 활용해 조기경보 모형 개발
금융·외환 위기 발생 시 조기 경보 가능

한국은행이 6개월 이후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내다보고 조기경보를 울릴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 모형을 개발했다. 해당 모형은 우리나라 금융·외환 시스템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보다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4일 'BOK 이슈노트: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금융 외환 조기 경보 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은행, 채권·주식, 외환 등을 모두 반영한 복합금융압력지수(CFPI)를 기준으로 위기·시기 불안기간을 식별해 위기발생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변수(트리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박정희 한은 디지털혁신실 과장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트리앙상블 모형(ET)을 적용한 조기경보 모형이 가장 높은 예측력(0.95, ROC-AUC 기준)을 나타냈다"며 "1990년대 이후 조기경보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는 신호추출법(SE)의 예측력(0.84)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소나무 4백만 그루 누가 심은 걸까요?"

NH헬스케어 고객님들의 발걸음이 심었죠!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건강을 관리하는
NH농협생명의 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와 함께한 856억 걸음이
약 1천만kg의 탄소를 줄였습니다

나와 지구를 모두 지키는 걷기 생활
이제 NH농협생명과 함께 걸어요!

내맘같이

NH농협생명

與野, 쟁점법안 '입장 차'… 영수회담서 상정안건 조정될 듯

농산물 가격안정화법 등서 대립
본회의 일정 조정도 합의 못해
與, 채상병 특검 고수 시 협의 어려워
野, 영수회담 협상서 '3+1' 의제 던져
거부권 자제 포함… 수용 여부 관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고 있어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화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농산물 가격안정화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농어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담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만큼,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날(23일) 만나 의사일정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쟁점 법안과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 처리를 고수할 경우 협의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열려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가 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윤 대통령은 간호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은 바 있다.

다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영수회담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3+1' 의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제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이 강경책을 대통령실이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친윤' 이철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 윤곽

與 국정운영 부정평가에 우려 목소리
野 후보군 압축에도 큰 갈등 없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안철수, 이철규 당선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정당의 입법·정책 실무를 이끌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각각 친윤석열계와 친이재명계를 상징하는 후보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교통정리가 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출마 의지가 있던 서영교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4일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직까지 내려놨는데, 입장문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가 박 최고위원으로 압축되는 모습에도 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친윤'의 대명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몸풀기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당 영입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하며 위로했다. 다음날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세 모으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책임을 지며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등 중책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책임을 져야 할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답답하면서도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한 것은 결국엔 친윤 아닌가.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당이 친윤계로 흘러가면서 과거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다"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면 자연스럽게 이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친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이 된다면, 당 대표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두둔했다.

/박태홍 기자

오세훈, 與 낙선·당선자 만나… 차기 대선 염두한 '세 모으기'

서울 지역 野 당선자와도 만날 계획
오, 이번 만남 대한 확대 해석 경계
차기 대권 지지도, 상대적으로 낮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에 무너지며 참패를 기록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차기 대선을 염두한 '세 모으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동·북부 지역 총선 낙선자와 만나고 22일과 23일엔 각각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나 함께 식사했다. 오 시장은 여당의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난 데 이어, 서울 지역 민주당 당선자와도 만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협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인사들을 만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이번 만남에 정치적인 의미 부여가 너무 많이 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시정을 펼치던 오 시장이 총선 패배로 내상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하는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대형 선거 때마다 '잠룡'으로 평가 받아왔다. 오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최초의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오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최초 일조권 소송으로 대기업에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환경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했던 오 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보수 정당의 소장파로 활약했다.

이후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재선 시장에 오르며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2011년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부결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의 험지인 광진을에 공천을 받았으나, 민주당의 정치 신인이었던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기고 서울시장직에 복귀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이미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주자보다 오 시장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 전 위원장이 21.3%, 홍 시장 12.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7.3%로 집계된 가운데, 오 시장은 6.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C노선 개통시 삼성역까지 15분… 초역세권 단지 매물 거둬

GTX 노선 따라가보니

금정

C노선 2028년 말 개통 예정
A·B노선 환승역과도 연계돼
힐스테이트금정역 관심 집중
초역세권 기대감에 거래 꽁꽁

경기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금정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김대환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금정역 주변에선 트리플 초역세권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금정역'과 10년 전 대장아파트였던 '래미안하이어스'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최근 찾아간 경기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금정역'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정역 주변의 대부분 단지에서 매매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몇몇 단지에서는 3년 전에 최고가를 찍은 이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보령제약 공장 부지에 들어선 '힐스테이트금정역'은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단지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지난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이다. 전용면적 72~84㎡ 아파트 843가구와 전용면적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C 금정역이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초역세권인 단지에선 GTX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 길이의 노선이다. 정부는 지난 1월 C노선을 기존 양주 덕정~수원 노선을 연장해 상단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까지,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아산(59.9㎞)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노선은 오는 2028년 말로 개통이 계획돼 있다. 개통 시 금정역에서 양재역까지 약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B노선 환승역과 연계돼 강남역, 서울역, 여의도역 등으로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정역 인근에서 산본1동1지구와 금정역 역세권 등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매매물건은 사라지고 전월세 거래만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장 침체기에도 집값 방어가 가능한 대단지 매물에 대한 수요자의 문의 전화가 간간이 오고 거래는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5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떨어졌던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을 기록하며 20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지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다. 군포(-0.04%→-0.06%)의 경우 하락세가 확대되며 23주 연속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난해 9월 전용면적 72㎡가 9억6000만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다. 동년 5월 거래가격(8억7000만원) 보다 9000만원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2644세대의 대단지인 '래미안하이어스'는 지난달 전용면적 114㎡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2개월 전 거래가격(11억500만원) 대비 2500만원 상승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인기 떨어진 체크카드… 애플페이 업은 현대카드만 훨훨

현대카드, 신규 체크카드 212% ⬆
애플페이 사용 MZ·잘파세대 유입

체크카드의 인기가 시들한 추세지만 현대카드는 신규 회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애플페이에 미리 진입 하면서다. 신용점수가 없거나 낮은 10~20대가 유입된 가운데 향후 신용카드 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카드가 발급한 체크카드는 총 48만6000장이다. 전년 동기(15만6000장) 대비 21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 금액은 1826억56000만원에서 84.65% 증가한 3372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크카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분위기에도 신규 회원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현대카드로 체크카드 회원이 유입된 배경에는 애플페이가 자리 잡고 있다.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MZ세대 및 잘파세대가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가입을 서두른 것이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 상륙한 지난해 1분기 현대카드가 발급한 체크카드는 총 32만2000장이다. 직전 분기 대비 106.4% 늘었다.

체크카드 가입자 중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신파일러'가 다수 포진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신용판매 확대에 영향을 주기 어렵지만 향후 해당 가입자가 주요 소비층으로 전환하면 신용카드 가입자와 승인금액을 함께 늘릴 수 있다. 다른 카드사가 애플페이 진입을 고민하는 이유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률이 증가한 것은 애플페이 출시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에 이어 하나카드의 체크카드 발급률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카드가 발행한 체크카드는 총 1184만4000장이다. 전년 동기 1092만7000장 대비 8.39% 늘었다. 지난 2022년 7월 여행 특화카드인 '트래블로그'를 출시한 뒤 매분기 체크카드 발급량이 20만장 안팎으로 증가세다. 휴가철이 겹치는 2~3분기에는 각각 25만장, 24만장씩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22~2023년 매분기 체크카드 발급량이 연속으로 줄어든 곳은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다.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비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발급량이 감소세다.

지난해 말 삼성카드가 발급한 체크카드는 50만장이다. 2년새 20만3000장 줄었다. 아울러 롯데카드의 체크카드는 44만장으로 같은 기간 19만7000장 감소한 상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분기별로 가입률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도 체크카드 마케팅은 줄이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등 월 3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수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한화생명, 인니 '노부은행' 지분 40% 매입

국내 보험사 최초 해외은행업 진출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인 '노부은행(Nobu Bank)' 지분투자를 통해 국내 보험사 최초 해외 은행업에 본격 진출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23일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투자 승인의 건' 안건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리포그룹(Lippo Group)'이 보유한 노부은행의 지분 총 40.0%를 매입하는 것이다.

노부은행은 1990년에 설립됐다. 2023년말 기준 총자산 2조3000억원 규모로 현지 30위권 수준의 중형은행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금융·부동산·유통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운영중인 재계 6위 '리포그룹' 소속으로 현지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번 지분투자로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손보업을 넘어 은행업까지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인구가 성장중인 인도네시아를 주요거점으로 동남아시장 확장전략을 펼쳐나간다.

향후 한화생명은 자사가 지닌 디지털 역량에 '리포그룹'의 은행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단기간 내 시장에 안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초기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사가 지닌 디지털 모바일 경험을 빠르게 적용한다. 기존 내방 중심의 전통적 채널에 디지털 뱅킹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채널을 구축해 모바일 기반 영업환경을 확산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명보험상품과 지난해 3월 지분을 매입한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의 손해보험상품 판매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

여행자보험 가입시 귀국 축하금 지급

KB손해보험이 귀국 축하금을 지급한다.

◆ **사고 유무 없이 최대 3만 포인트**

KB손해보험은 KB스타뱅킹에서 KB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귀국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귀국 축하금은 KB스타뱅킹에서 K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포인트리로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서비스다.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KB포인트리는 KB스타뱅킹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KB해외여행보험은 개인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다. 가족, 친구, 동호회, 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족형으로 가입하면 10%를 추가로 할인한다. 기본, 표준, 고급형 중 원하는 플랜을 선택 후 보장과 보장 금액을 직접 설계하고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지난 18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2024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에서 김순기 전략기획그룹장(오른쪽 네번째)과 베트남 법인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베트남 임직원 초청 비즈니스 트립 진행

신한라이프가 베트남 임직원을 모회사로 초청했다.

◆ **4박 5일 간 '비즈니스 트립'**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인 임직원들을 모회사로 초청해 '비즈니스 트립'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회사의 보험 전문성과 전속채널 운영의 노하우를 베트남 법인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베트남 현지 법인의 본사 임직원과 영업조직 관리자 등 7명을 대상으로 본사 투어, 영업점 교육 참관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개최한 FC채널 영업대상 시상식에도 초청했다.

베트남 법인은 지난 2022년 1월 영업개시 이후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모델 ▲판매채널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다. 영업수익은 지난해 216억원을 기록해 2022년 127억원 대비 70.1%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주형 기자

철강업계, 중후판 수출 확대 '수요부진·저가공습' 넘는다

美·유럽 등 판로개척 '구슬땀'
1분기 중후판 수출량 84.5만t
전년 동기대비 25% 이상 증가

국내 철강업계가 국내 수요부진과 해외 철강제품의 저가공습에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사들이 부진한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중후판 수출량은 총 84만5000톤이다. 지난해 67만4000톤에 비해 25%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214만 7000톤으로 지난해(215만8000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생산량은 유지하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은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9만5000톤으로 지난해(20만4000톤)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11만1000톤, 6만6000톤으로 집계됐다.

국내 철강사들이 해외 수출을 늘리는 요인으로는 자국 내 수요부진이 꼽힌다. 올해 1분기 국내 후판 내수 판매는 총 148만8000톤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후판 판매의 주요 고객사인 조선사의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제품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기준 국내 후판 유통가는 톤당 98만원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80만원 후반대로 약 10%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저가를 앞세운 수입산 철강재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도 철강사의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사와 철강사의 후판 가격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 남아도는 철강을 처리하기 위해 저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진행해 전 세계적으로 1억톤가량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국내 후판 판매량은 1분기 38만톤으로 전년(34만7000톤) 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국내 철강사의 미국향 수출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량 자체가 적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AI TV' 초격차 기술 뽐내 삼성전자가 지난 23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태국 방콕에서 테크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TV 핵심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2024년형 Neo QLED 8K와 삼성 올레드(OLED) 등 AI TV의 ▲화질 업스케일링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 화면 설정 ▲글레어 프리 기술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 등을 소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오션, 흑자전환 성공… 영업익 529억

분기 실적 발표… 매출 2조 2836억
LNG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 생산 증가

한화오션이 올해 1분기 5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은 매출액 2조 2836억원, 영업이익 529억원, 당기순이익 510억원 등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약 58.6%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LNG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선종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증가와 이익개선, 환율효과 등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됐다. 특히 상선, 특수선, 해양 등 3개 사업분야 모두 매출 증대와 흑자전환을 동시에 기록했다.

올해 한화오션의 경영실적에는 고선가로 수주한 LNG운반선 건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올해 역대 최다인 22척의 LNG운반선을 건조한다. 내년에는 24척의 LNG운반선 건조가 예정돼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1분기와 같은 견조한 실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바탕으로 각 사업분야별로 매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23일(현지시간) 현대모비스 스페인 배터리시스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공사 착공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스페인 'BSA' 공장 착공

〈전기차용 배터리시스템〉

年 36만대 BSA 생산… 폭스바겐 납품
전동화, 글로벌 수주 등 핵심사업 수행

현대모비스가 유럽 자동차 시장의 중심인 스페인에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공급을 위한 전용 공장을 짓는다.

현대모비스는 23일(현지시각) 스페인 나바라주(州)에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폭스바겐에 공급할 전기차용 배터리시스템(BSA)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BSA는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터리팩에 제어장치 등 전장부품을 합친 완제품을 의미한다. 고용량·고효율 배터리시스템은 전기차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다.

스페인 공장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공장 규모는 대지면적 약 15만㎡로 축구장 21개 크기다. 연간 최대 36만대의 BSA를 생산한다. 생산한 BSA는 공장서 약 14㎞ 떨어진 폭스바겐 팜플로나 공장에 납품한다. 현대모비스의 BSA는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탑재된다.

스페인 공장은 현대모비스의 핵심 사업방향인 전동화와 글로벌 수주 확대 임무를 수행한다. 2030년까지 약 170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전동화 설비기술을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스페인 공장을 글로벌 고객사에 특화된 전동화 표준모델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한국과 중국, 체코에 BSA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미국과 인도네시아서도 전동화 핵심부품 거점을 건설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볼보그룹코리아, 창원공장 배터리팩 생산

2500㎡ 규모 생산 인프라 구축

세계적인 건설기계 전문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경남 창원공장에 아시아 최초로 그룹 배터리팩 생산 시설을 완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 23일 창원공장에서 배터리팩 생산시설 완공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생산 시설은 지난해 2월 볼보그룹 본사로부터 약 100억원의 투자를 받아 구축했다. 1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창원공장의 콤포넌트 생산 시설 내 약 2500㎡ 규모로 들어섰다.

이는 국내 건설기계 제조사 중 최대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 라인이다. 창원공장은 이번 배터리팩 생산 시설 완공으로 그룹 내 전동화 로드맵 이행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앤드류 나이트 볼보그룹코리아 대표이사가 23일 볼보건설기계 창원공장 배터리팩 생산 시설 완공 오픈식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그룹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는 2022년 4월 전기굴착기 양산 라인을 구축한 데 이어 배터리팩 생산 시설까지 완공하면서, 배터리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배터리 수입에 따른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큐셀, 450MW 규모 태양광 사업 수주

美 TGC 대규모 '턴키' 계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

24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상업용 태양광 EPC 전문 자회사 '인에이블(Enable)'이 미국 에너지인프라 전문 사모펀드인 TGC(True Green Capital Management)와 총 45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발전소 EPC(설계·조달·건설)를 수행하는 내용의 '턴키(turn-key)' 계약을 수주했다.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TGC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모듈 450MW를 공급한다. 인에이블은 발전소 EPC를 담당한다. TGC는 미국 전역의 건물이나 공장의 주차장,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업용 태양광 사업과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제조업 밖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화큐셀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잇단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만큼 사업기회를 선점해 안정적 매출 확보와 함께 사업 성장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한국타이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e 스마트시티 AU56' 수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에서 전기차 타이어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버스용 타이어 신제품 e 스마트시티 AU56이 24일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e 스마트시티 AU56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텀파운드로 제작됐다. 전기버스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이전에 비해 높은 내구성(마일리지)을 보유하고 있다. 또 혁신적인 타이어 트레드 블록 기술을 적용, 향상된 접지력과 연장된 트레드 수명을 강점으로 한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전략특허 1000개 중 침해 580건… 소송戰 돌입

소·중대형 배터리 차세대 기술 유출
국제특허풀로 단계적 라이센스 계획
김동명 "침해시 소송 등 강경 대응"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한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자사가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

특히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되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에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특허센터장 이한선 상무는 "LG에너지솔루션은 산업의 초창기부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시장을 개척해온 오리지널 이노베이터(Origianl Innovator)"라며 "앞으로 기술 주도권을 지키고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권의 정당한 거래 시스템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침해 사례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 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 되어 쓰이고 있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 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회피하여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침해 중인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주요 특허를 단계적으로 라이선스 함으로써 라이선스 사업과 관리를 효율화 한다. 이미 반도체, 통신 등 주요산업에서 특허 라이선스 시장이 활발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선도업체는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를 수취해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후발기업은 정당한 특허권 사용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한 대응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를 확대해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도업체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에 앞장서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고 미래 핵심 기술 개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박성효 "사옥 이전 권한 소진공에 있다"

〈소진공 이사장〉

대전내 이전 지역여론 반대 기자회견
朴 "소진공 설립 원도심 활성화 아냐"
노조 "이전반대 주장은 자기모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사옥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진공

대전내에서 사옥을 옮기겠다고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배수진을 단단히 쳤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유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전시와 지역언론을 향해 사옥 이전의 결정주체는 소진공이라고 강력하게 전달하면서다.

소진공은 24일 오전 대전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사옥 이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사옥 이전 결정 권한은 소진공이 갖고 있다. 사옥입지는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업무환경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진공은 현재 있는 중구 대흥동에서 6월에 유성구 지족동으로 본부를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소진공의 설립 목적은 (대전에서 주장하는)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다. '주변 상권을 살리고 죽이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식으로 (이전의)본질을 호도해서도 안된다"면서 "소진공이 타 지자체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대전세종연구원 등의 타 기관이 사옥을 옮길 땐 반대하지 않았으면서 유독 소진공에겐 불가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 원도심 공동화는 85년 조성한 둔산 신도시, 99년 대전시청 이전, 2012년 충남도청 이전 등에서부터 시작됐다는게 소진공의 입장이다. 게다가 대전의 도심 중심축이 중구에서 서구·유성구로 변화한 것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요인으로, 소진공의 입지는 부차적인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중앙·지방, 민·관·자치단체·지역상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문제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입주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박 이사장은 "사옥 이전과 함께 앞으로도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시 지방투자"

중견련, '지방투자 의향 조사'
61.2% "상속공제확대시 신규투자"
62% "상속세 감면 땐 지방 이전"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가업상속공제 혜택를 확대하고 상속세 추가 감면까지 더해질 경우 신규 투자 뿐 아니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곳 중 8곳 이상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세·지방세가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지방투자 의향 조사'를 실시, 2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시 지방 투자 규모는 '100억 이상~500억 미만'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00억 미만'(28.4%), '1000억 이상'(14.7%), '500억 이상~1000억 미만'(13.8%) 순이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9.1%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현행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48.3%는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사업 영위기간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30년 이상 600억 원) 범위를 '사업 영위기간별 400억·600억·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해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선 상속세 감면에 더해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한다'(81.9%)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애경케미칼, '스페셜티 제품' 기술개발 집중

'슈퍼섬유' 아라미드 주원료

애경케미칼이 석유화학업계 불황 타개책으로 '스페셜티 제품 강화'를 선택했다.

애경케미칼은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등 고강도·경량화 소재를 회사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선정하고 전사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TPC(TerePhthaloyl Chloride)는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한데다 난연성까지 갖춰 '슈퍼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 섬유의 주원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라미드 섬유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TPC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애경케미칼은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TPC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 독자적 기술을 만들고, 지난 2020년에는 울산공장에서 데모 플랜트를 가동했다.

기존 TPC 생산 방식은 '열'을 활용해 이산화황과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했다. 반면 애경케미칼이 적용한 '광 공법'은 이산화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염화수소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애경케미칼은 지난 2023년 11월 시제품을 생산해 품질 검증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만을 앞두고 있다. 2025년까지 양산 체계 구축을 마무리 짓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해 아라미드 섬유 밸류체인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LGU+, '키즈토피아' 자연탐사 콘텐츠 출시

자체 개발 AI 기술 '익시' 적용

LG유플러스가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키즈토피아'에서 생태체험 학습 콘텐츠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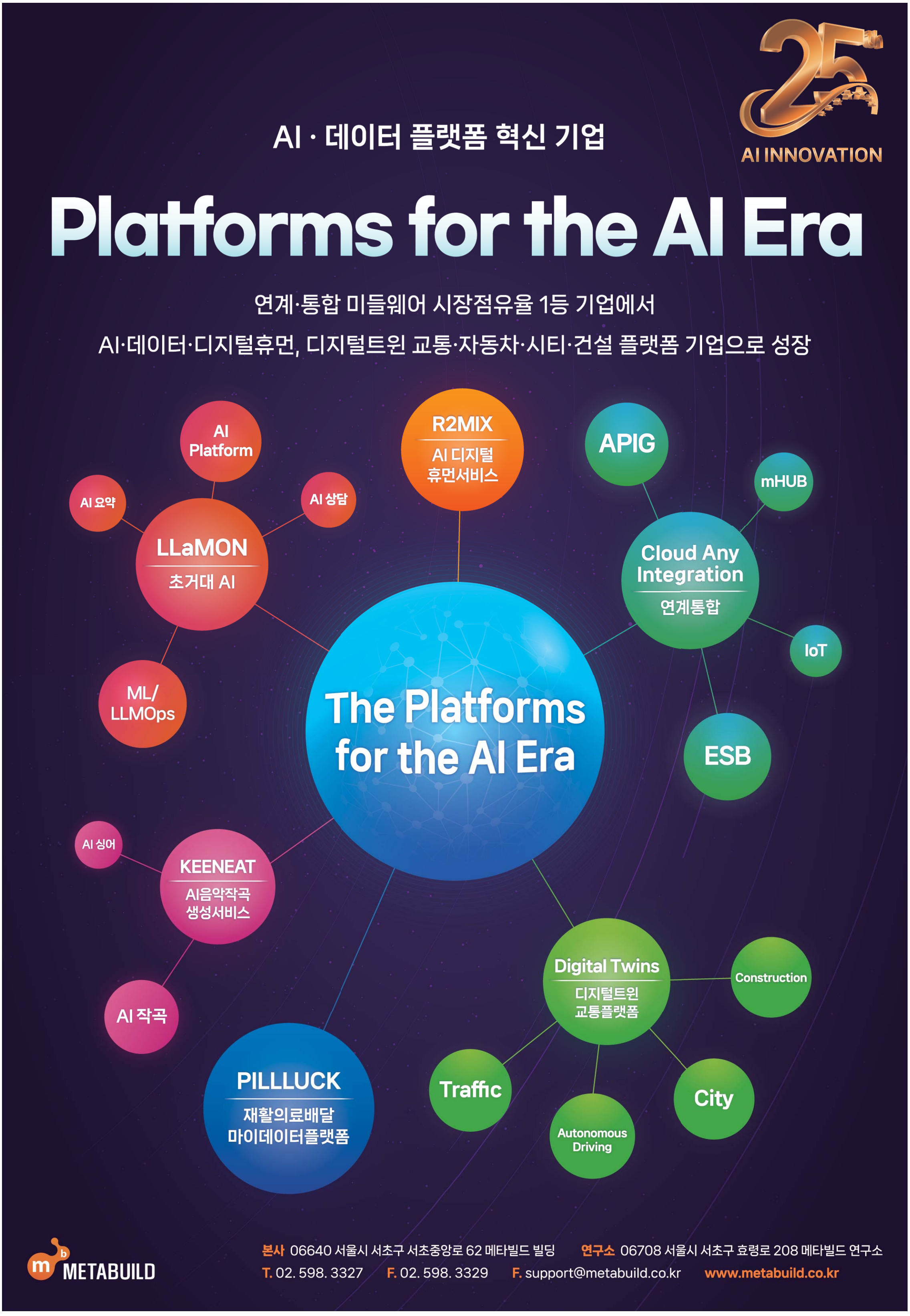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 생태체험 학습 콘텐츠 '지구사랑탐사대'를 메타버스 환경에 구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사랑탐사대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인 익시(ixi)를 적용해 서비스 이용자의 메타버스 경험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도시, 산, 바다 등 다양한 자연환경은 물론 시간과 계절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타버스 체험 공간 내 익시 기반 NPC(Non-Player Character, 사용자가 직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 안내원을 배치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연환경을 탐사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AI 안내원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상엽LG유플러스CTO(최고기술책임자)는 "AI와 메타버스를 융합해 가상세계에서 현실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연 학습 콘텐츠를 구현, 이용자들이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동식물을 관찰하며 공부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25th
AI INNOVATION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AI Platform
AI 요약
AI 상담
LLaMON
초거대 AI
ML/ LLMOps
R2MIX
AI 디지털 휴먼서비스
APIG
mHUB
Cloud Any Integration
연계통합
IoT
ESB
The Platforms for the AI Era
AI 싱어
KEENEAT
AI음악작곡 생성서비스
AI 작곡
PILLLUCK
재활의료배달 마이데이터플랫폼
Digital Twins
디지털트윈 교통플랫폼
Construction
Traffic
Autonomous Driving
City
METABUILD
본사 0664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메타빌드 빌딩
연구소 0670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 연구소
T. 02. 598. 3327
F. 02. 598. 3329
F.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판교 40분대… GTX-D 등 광역교통망 호재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GS건설

GS건설은 오는 5월 경기 여주시 교동 일대에 들어서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아파트 769가구를 내놓는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59㎡A 85가구 ▲59㎡B 81 가구 ▲84㎡A 249 가구 ▲84㎡B 248 가구 ▲99㎡A 52 가구 ▲99㎡B 52 가구 ▲136㎡P(펜트하우스) 2가구 등 총 769 가구 규모다.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주를 주목하게 만드는 대형 호재는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정부가 지난 1월 25일 계획을 발표한 '2기 GTX 사업'의 하나인 GTX-D 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되면서 특수가 기대된다. GTX-D노선은 경기 김포와 하남, 원주 등을 잇는다. 여기에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광역철도망인 경강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경강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여주는 서쪽으로는 판교와 인천, 동쪽으로는 원주와 강릉까지 연결된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IC,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제2영동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단지 주변으로 황학산 산림욕장을 시작으로, 황학산 수목원, 영월공원, 여주근린공원, 양섬공원, 신륵사 관광지, 금은모래 강변공원, 세종대왕릉 등 다양한 공원과 관광시설이 밀집해 있다. 남한강도 가깝다. 일부 세대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도 선보인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 시설을 갖춘 입주민 전용 실내골프연습장,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카페앤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작은 도서관에서는 교보문고와 북큐레이션을 맺고,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춘 도서도 제공한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에 고객라운지를 열고 방문고객 대상으로 분양상담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자이카카오톡, 자이앱, 자이TV 등 자이의 SNS를 추가하면 여주역자이 헤리티지의 다양한 분양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1644-1080)

아파트값 반등에 "내집 마련 청약

청약홈 개편과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하고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반등하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5일 기준 4주 연속 오르며 주택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도 10주째 상승하며 살아나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승이 꺾이지 않으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 볼 만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 분양 물량이 많다. 부산을 비롯해 원주, 여주, 아산, 익산 등에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 청약시장 성적은 분양가와 입지 등에 따라 차별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역세권·학세권에 인프라까지 '3박자' 갖춰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DL이앤씨

DL이앤씨는 이달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15가구 중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32가구 ▲59㎡B 9가구 ▲59㎡C 20가구 ▲84㎡A 6가구 ▲84㎡B 6가구 ▲84㎡C 46가구 ▲99㎡A 4가구다.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위치한다. 도보 1분 거리의 두실역을 통해 부산대역과 서면역, 부산역 등 주요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두실역에서 3정거장이면 도착하는 노포역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금정점을 비롯해 이미 잘 형성된 생활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남산중이 위치하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남산초가 인근에 자리한다. 또 지역 내 명문학교로 꼽히는 부산과학고,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부산외대 등도 인접해 교육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뒤쪽으로는 동래베네스트 골프장이 있고, 단지 앞으로는 온천천자전거길이 있다.

84·99㎡에는 입구에 가구 내부 수납이 어려웠던 큰 부피의 자전거나 유모차 등 계절용품, 레저용품까지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제공된다. 전 가구 다용도실에는 세탁,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라운지 카페 등이 마련된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키즈 라운지도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잔디마당과 수경시설이 있는 '드포엠 파크(dePOEM Park)'가 단지 중심에 위치하며, 동 마다 다양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로비계절정원과 단지 앞에 위치한 온천천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정원도 조성된다.

한편,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홈페이지에서는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관심고객 등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051)782-5777

무왕·선화로 '사통팔달

익산 부송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전북 익산시에서 '익산 부송 아이파크' 84~123㎡ 511가구를 분양한다. 면적별로 ▲84㎡A 194가구 ▲84㎡B 119가구 ▲104㎡ 158가구 ▲123㎡ 40가구다. 단지 동쪽으로는 약 89만㎡ 규모의 팔봉근린공원 개발(예정)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익산시민공원, 중앙체육공원 등의 접근이 용이하다.

무왕로, 선화로 등 직주근접 교통망과 KTX익산역, 익산IC 등을 통해 익산 시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코스트코(예정)가 익산시 입점을 추진 중이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에서 공급되는 첫 번째 '아이파크'다. '아이파크'만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용적률 199%, 건폐율 14%의 쾌적한 단지설계가 돋보인다. 치되고 넓은 동간 거리 유리하다. 지상 주차를 로를 확보했으며, 조경 에 달해 친환경 공원형 급되는 모든 면적에 드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제 프 스타일에 따라 실내 대형 드레스룸을 마련하

커뮤니티 시설로는 프연습장, 키즈라운지,

산단 밀집 '직주근접'… 연내 안중역 개통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

동문건설은 이달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 6-2블록에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753가구를 선보인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530가구 ▲84㎡B 139가구 ▲107㎡ 84가구 등이다.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가 들어설 평택 화양지구는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요건도 갖추고 있다. 화양지구는 차량 15분 거리에 평택항이 위치해 있고,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현덕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포승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근에 밀집해 있다.

교통호재도 돋보인다. 단지와 가까운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중역(KTX 직결 예정)의 경우 서해선-경부고속선 직결사업이 예정돼 있어 추후 서울 등 수도권 및 지방 지역으로의 진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정부가 GTX-C노선을 평택과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 평택선을 통해 평택역과 안중역이 연결된다.

화양지구의 중심에 들어서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와 공원, 종합병원, 공공청사, 상업·업무지구 등이 다양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가까운 곳에 호수와 바다가 만난 '평택호 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특화설계 역시 눈길을 끈다.

단지는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4베이(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갯수·Bay) 평면 및 남향 위주의 설계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알파룸 공간을 활용한 클린룸 특화평면을 유상옵션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일부 세대는 서해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동문 디 이스트'는 동문건설이 지난 2021년 새롭게 런칭한 동문건설의 대표 브랜드다. '동문 디 이스트'는 영어 정관사 디(THE)와 형용사 등의 최상급을 나타내는 이스트(EST)의 합성어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위치한다. (1588-0753)

4300가구 대규모 주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충남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1214가구 중 10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로는 ▲70㎡A 560가구 ▲70㎡B 154가구 ▲70㎡C 60가구 ▲84㎡A 188가구 ▲84㎡B 126가구 ▲84㎡C 126가구 등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갈산리, 매곡리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3·4블록 더샵 브랜드 타운(2354가구)을 포함한 4300여가구 규모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들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 수 있다. 또 이순신대 도로(아산~천안 구간 접해 있어 도로를 이용 다. 올 1월 발표된 GT 에 아산시가 포함돼 있

지난 1월 아산탕정지

주택시장 '온기' 에 도전하세요"

/유토이미지

일대 재개발 활발… 서울 등 광역 접근성 '우수'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이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1502가구 가운데 59~108㎡ 1273가구를 일반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는 ▲59A㎡ 169가구 ▲74A㎡ 131가구 ▲84㎡A 407가구 ▲84㎡B 270가구 ▲108㎡ 75가구며, 2단지는 ▲59C㎡ 26가구 ▲59D㎡ 13가구 ▲74C㎡ 95가구 ▲84㎡C 87가구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우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에서 반경 2㎞ 내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원주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등 대형 병원 이용도 쉽다.

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원주종합체육관은 각종 콘서트, 문화공연, 대규모 체육대회 등이 열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원주천을 비롯해 남산공원, 단계공원, 일산공원 등 다양한 공원들이 가깝다. 특히 원주천의 경우 원주천변을 시민 여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른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친환경 공원형 조성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를 갖춰 사생활 보호에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 면적은 전체의 약 36% 단지가 될 전망이다. 공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등 제공되며 입주민의 라이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익산시에 처음 선보이는 아이파크인 데다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우수한 입지에 걸맞은 상품성까지 갖출 예정이어서 익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마련된다. (1670-0511)

근린공원·체육센터 근접 '스마트 단지'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이달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A2블록 74~106㎡ 931가구 ▲A4블록 74~84㎡ 341가구 등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이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

주변으로 근린공원 예정 부지가 가깝고 죽림근린공원, 죽림저수지 등 공원들이 다수 있다. 특히 죽림지구 내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될 계획이다.

지상 1층에 수영장과 실내 놀이터, 지상 2층에 다목적 체육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반경 3㎞ 내에 KTX 여천역, 여천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다.

74㎡A, B타입은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되며, 84㎡의 경우 알파룸,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된다.(일부 타입 제외) 또한 일부 타입에 다락, 테라스 특화 설계가 적용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 A2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튜디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A4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된다.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먼저, 단지는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주차 위치를 인식하는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도 적용될 예정이다.

하이오티(Hi-oT) 스마트홈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세대 내 월패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난방, 쿡탑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주차위치 확인 등 생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개관한다. (1551-4788)

지… 학교·녹지 등 예정

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로와 당진~청주고속 23년 9월 개통)가 인 용한 교통 편의성도 높 TX-C 연장 구간 계획 있다.

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들어설 탕정 8초교(2027년 3월 개교 예정·가칭)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통과돼 신설이 확정됐고, 유치원과 중학교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모다아울렛, 이마트, CGV,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탕정역과 천안아산역 일대에 위치한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여기에 가까이 곡교천이 흐르고 있고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예정)이 위치한 공세권 아파트이며, 인근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도 가깝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도 적용되며,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코앞에 가야역… 전국구 상권 누려요"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이달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아파트 59~84㎡ 725가구, 오피스텔 52~69㎡ 80실 등 총 805가구를 분양한다. 타입별로 아파트 ▲59㎡A 80가구 ▲59㎡B 40가구 ▲77㎡ 120가구 ▲84㎡A 323가구 ▲84㎡B 162가구, 오피스텔 ▲52㎡ 40실 ▲69㎡ 40실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 일대는 개금 롯데캐슬(개금동), 가야역 롯데캐슬골드아너(가야동), 서면 롯데캐슬스카이(전포동), 서면 롯데캐슬엘루체(부전동) 등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가 여러 곳에 들어서 있어 친숙한 만큼 이번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분양에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을 도보 1분거리에 두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부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호선을 이용하면 국제금융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를 비롯해 광안리, 해운대 방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가야역에서 2개 역만 이동하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서면역이 있어 동구와 서구 등 부산 도심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는 단지 앞 가야대로를 비롯해 동서고가도로, 관문대로, 수정터널 등으로 사상구, 남구 등 부산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가야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서면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전국구 상권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롯데호텔, 롯데면세점과 전포카페거리, 향토음식특화거리 등 여러 특색을 갖춘 상업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산진구청 등도 서면 인근에 있다.

또한 옛 미군기지 부지에 다양한 테마로 조성돼 부산시민의 쉼터로 자리잡은 부산시민공원 등을 비롯해 부산백병원 등도 가깝다. 교육환경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도서관, 수학문화관 등이 들어서 있는 부산글로벌빌리지가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마련된다. (1551-2143)

중동 위기 등에 '반대매매' 275억… 3高 겹친 빚투족 '덜덜'

신용융자 올해 첫 감소세 전환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증가
증권사 저금리·빚투 자극 지적

/유토이미지

중동지역 정세 불안, 금리인하 우려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반대매매 공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용공여잔고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275억원의 반대매매가 쏟아졌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신용융자 잔고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5일 18조5457억원이었던 신용융자잔고는 이달 초 19조5000억원까지 오르면서 약 한 달 사이 1조 가량 급증했었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는 19조325억원까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빚투족'의 자발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여파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달 신용거래융자가 급증하자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변동성에 따른 반대매매를 유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란 증권사 고객이 신용융자 등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 변제하지 못했을 때, 투자자 허락 유무와 관계없이 주식이 처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코스피가 주저앉았던 16일 이후 반대매매가 쏟아졌다. 지난 17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172억원이었으며, 18일에도 1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반대매매 체결액이 100억원을 넘긴 날은 1월 18일(102억원)과 2월28일(115억원)뿐이다. 직전이었던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56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틀 연속 100억원을 상회하는 매물이 출회됐다는 것은,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빚투족들의 주식이 강제 청산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신용융자잔고가 19조원대로 불어난 시점에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3高(고)'가 겹친 만큼 반대매매 우려는 상존하게 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동전쟁)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물론 시장 참여자들은 이란 추가 대규모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낮추는 등 빚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용융자 7일물 이자율을 0%로 지정했으며, 이외에도 교보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신용거래 혜택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사, 부동산 PF 손실 최소 1.4조… 2분기 실적 '우려'

미래에셋 등 5개 증권사 1분기 흑자
당기순이익 9098억 전분기 보다↑
자본완충력 통해 대응해야 할 것

여의도 증권가. /손진영기자 son@

증권사들이 거래대금 증가로 1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해 2분기 실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한국투자(한국금융지주)·NH투자·삼성·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2023억원으로 전분기(-2056억원) 보다 크게 개선돼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9098억원으로 전분기(-2547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호실적을 거두게 된 데는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위탁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추진, 해외 주요 지수의 급등 등이 겹치면서 국내외 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관련 수입이 크게 좋아졌다. 1분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16조5000억원)에 비해 약 30% 증가했으며, 해외주식 거래대금도 123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8.5% 늘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과 해외 주식 거래대금이 견조함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 등 관련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증권사들의 1분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입은 전분기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예상 부동산 PF 손실(충당금)은 최소 1조4000억 원에서 최대 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6개 증권사(자기자본 3조 원 이상 9사와 그 외 중소형사 17개사)가 지난해 말까지 손실에 대비해 적립해 둔 충당금을 고려할 때 예상 추가 손실 규모는 1조4000억~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해외 부동산 등 대체 투자와 관련한 추가 손실도 제기됐다.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3조원인데 이중 대형사가 11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유럽 등 업무시설(오피스) 비중이 약 50%로 가장 많았다. 한신평은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는 국내 부동산 PF보다 작지만, 추가 손실 부담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문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충당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등이 업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각 증권사는 자본완충력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1분기 증권결제대금 일평균 23.1조… 전년대비 8% 감소

직전 분기 비교시 6.4% 증가 금액

한국예탁결제원은 1분기 주식과 채권을 합친 증권결제대금이 일평균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6.4% 증가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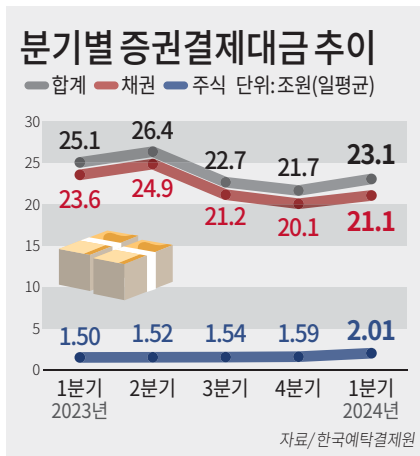
주식결제대금은 2조1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7%, 1년 전 대비 34.3% 증가했다. 채권결제대금은 21조1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8% 증가했으나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10.5% 감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 주식시장 하루 평균 결제대금은 89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1%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4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8.2% 늘었고, 차감률은 96.4%로 전 분기대비 0.2%포인트(p) 증가했다.

1분기 장내 채권시장 일평균 결제대금은 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8%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7조36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4% 늘어난 반면 차감률은 64.6%로 직전 분기 대비 3.9%p 감소했다.

기관투자자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1조12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1.5% 늘었다. 거래대금은 12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5% 증가했고, 차감률은 90.8%로 전 분기에 비해 0.5%p 줄었다.

1분기 채권기관투자자결제 거래대금 역시 1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8% 증가했다. 거래대금과 차감률은 각각 27조3000억원, 32.2%로 전 분기보다 각각 5.8%, 1.9%p 늘었다.



/원관희 기자 wkh@

코스콤

'D-테스트베드' 참여 기업 모집

코스콤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우수한 핀테크 아이디어가 양질의 비즈니스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코스콤에서 수행을 맡고 있다

D-테스트베드 참여자로 선정 시 개인·팀·기업 등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인프라가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각자 적합한 유형에 맞춰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참여자들은 오는 5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4주에 걸쳐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상·하반기 참여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스타트업 성장위한 'VC IR데이' 개최

삼성증권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벤처투자, 울산·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삼성증권 부산기업금융지점에서 VC IR데이(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VC IR데이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지역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작년 VC IR데이에 참여한 기업 중 에듀테크 기업인 산타가 엑센트리벤처스, 경남벤처투자, 삼성증권 등에서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벤처캐피탈, 기관투자자, 법인, 삼성증권 고객 등이 이번 IR 행사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은 자금 유치를 통해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도 스타트업 투자단계에 맞춰 씨드머니 혹은 시리즈 A라운드 이상 규모의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상이 참여해 IR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어(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자성분말 및 이를 활용한 고효율 모터코어 제조사업) ▲에이엔제이사이언스(전합성 플랫폼 기술보유, 난치성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 13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원관희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S HOUSE BRAND GORILLA

지난해 가축분뇨 5087만t 발생 퇴비·액비 등으로 85% 자원화

농식품부, 1.5만여 표본농가 대상 축산환경관리원과 현장조사 실시

농가 55%, 악취저감 시설 보유 두당 전력소비량, 젖소 가장 많아

지난해 국내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비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는 도합 5000여만톤(t) 발생했고, 이 중 85%는 각각 퇴비(73%)와 액비(액체화 된 거름·12%)로 활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만5000여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현황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한우와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들이다.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는 총 5087만1000톤t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돼지분뇨는 1967만9000t(39%), 한우·육우 1751만1000t(34%)으로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했다.

작년 발생한 가축분뇨 2619만t(51.5%)는 퇴비 1930만t, 액비 264만2000t 등 농가에서 자가 처리됐다. 또 2468만1000t(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해 퇴비 1772만3000t, 액비 336만1000t 등으로 자원화했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85%는 각각 퇴비(73%)와 액비(12%)로 활용됐다. 돼지 분뇨를 제외한 대다수 분뇨는 퇴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80.5%)와 젖소(66.7%) 분뇨의 자가 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닭(80.9%), 오리(71.9%), 돼지(61.7%) 분뇨는 주로 위탁 처리되고 있었다.

한편, 악취저감을 위해 농가의 55%(돼지 86, 닭 59 등)가 안개분무시설 등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농가의 62%는 다양한 미생물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내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결과, 한·육우의 경우 소형냉동고, 젖소는 원유냉각기, 돼지는 급이기, 닭은 환경제어기, 오리는 소형냉동고의 사용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두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kWh/년)은 젖소(1061kWh), 한·육우(842), 돼지(112), 닭(49), 오리(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축사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대부분은 면세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여름철 차광막 설치, 단열재 시공,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축산환경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환경조사를 통해 축산현장 실태에 대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축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와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텝, 세계적인 직업훈련플랫폼 만들 것"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평생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 역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24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m)'은 국가 평생 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한기대 구성원들은 '스텝'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2015년 'e-koreatech'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다양한 효과를 거두자 더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아우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스텝은 그간 다양한 직업훈련생과 기관들에 온라인 기반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제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온라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고용부는 집체교육 중심의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스텝을 활용한 스마트 혼합훈련 등 새로운 훈련 방법으로 전환, 국가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10년간 누적 회원 수는 약 81만명으로 이러닝과 가상훈련 등 공공 온라인 훈련콘텐츠 1905개를 개발해 전 국민에 서비스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기관 수는 653개 기관에 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K-푸드 2000만달러 계약 성과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와 진행 농식품, 전년比 약 5% 증가 실적

농림푹산식품부는 24일 지난주 개최된 '2024년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이달 17~18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렸다. K-푸드+란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 농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이 중 총 42건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 분야는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00만 달러,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년(1900만 달러)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또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 홍보관 등이 운영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주 현장을 찾았다. 송 장관은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유력 식품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 연계 소비자홍보(PPL), 해외 주요도시 K-푸드페어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GLI CA 소속 마이클 킴은 "미국 남부에서 K-푸드의 인기가 대단하다. 현재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남부지역 주력 매장인 H.E.B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산 신선배와 배즙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스낵류, 면류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42.4억 감면

고용부, 약 39만명에 지원

청년 약 39만명이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42억40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올해 1분기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년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 사업으로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 응시 청년이 크게 증가하는 등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만2433명(2.6%) 증가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만2477명(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만4880명(6.1%)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는 전년 대비 2만5650명(20.8%) 늘었다.

또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6%, 35.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기시험 청년층 접수자도 필기시험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회로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맘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진청, 신품종·신제품 시장성 평가 실시

대형 유통업체 책임자에 의뢰

농촌진흥청은 25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촌진흥기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품종·신제품의 시장성 평가를 대형 유통업체 책임자에게 의뢰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들어 처음 열리는 시장성 평가는 신품종·신제품이 시장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상품 판촉 기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평가에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매시장,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자가 참석해 신품종·신제품 15품목을 대상으로 시장 판매 가능성을 진단한다. 품종 또는 상품별 소개와 참석자 토론을 거쳐 개선점을 찾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성 평가 품목 가운데 농촌진흥청 버섯과에서 개발한 황금색 팽이버섯 '아람'과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메밀품종 '황금미소'로 만든 메밀면이 특히 주목된다.

농진청은 올해 전문 유통인 시장성 평가를 총 3회 추진한다. 상반기 (2회) 시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품목을 선정해 판매처를 연결하고 입점 제반 사항 확인(해썹 유무 등), 상품 포장 및 가격 협상을 거쳐 판매가 성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두종 농진청 농산업경영과 과장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신제품의 시장성 평가를 지속해서 추진해 연구자들에게는 시장성 높은 상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K-치킨’ 해외서 날았다… 작년 총 매출 1298억, 56%↑

BBQ 해외 연매출 1100억, 69%↑
美 등 57국서 매장 700여개 운영

bhc 연매출 20억, 193% 급증가
동남아·북미 중심 영역확대 나서

교촌 美·中 등서 70여곳 매장 운영
대만 진출 8개월 만에 4호점 오픈

교촌치킨 대만 4호점, /교촌치킨

지난 몇년 동안 치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냉동 치킨이나 마트 델리 상품으로 치킨을 대신하자 업계가 국내시장 공략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국내는 이미 치킨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 확대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bhc 등 국내 치킨 대표 업체들은 지난해 해외에서 총 매출 1298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832억5900만원 대비 약 56% 성장한 수치다.

BBQ는 지난해 해외에서 1100억원을 벌어들였다. 전년 650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BBQ는 해외 시장 개척에 가장 적극적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직영보다는 마스터프랜차이즈(MF) 형태로 계약을 맺고 해외 점포수를 늘리고 있다. MF는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 사업 운영권을 주고 원자재 납품,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현재 57개국에서 7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행보가 독보적인데, 올초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점을 오픈하며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하와이 등 27개 주에 250여 매장을 운영중이다.

bhc는 동남아와 북미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등에서 1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bhc는 지난해 20억22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전년 6억9100만원 대비 193% 늘었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성장세가 가파르다.

bhc는 2018년 홍콩에 첫 진출했으며,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점포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bhc치킨 북미 1호점인 ‘LA 파머스 마켓점’을 열었고,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4~6호점을 출점했다.

교촌치킨은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국가에서 70여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만 라카파 인터내셔널 그룹의 킹자 인터내셔널과 MF 계약을 통해 대만 1호점을 개점한 후 현지 진출 8개월만에 4호점까지 오픈했다.

교촌치킨은 신임 대표에 선임된 송종화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 K-프랜차이즈 해외진출의 물꼬를 튼 인물로 평가 받았다.

해외사업에서는 치킨 외에 ‘K-소스’ 알리기에도 나선다. 현재 ‘K1 핫소스’ 3종을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 선 판매 후 해외 판로 확대라는 보편화된 업계의 전략과 달리 아마존 선론칭을 통해 해외 소비자를 우선 공략하는 전략을 펼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GC인삼공사

가수 임영웅 모델 정관장 광고 공개

KGC인삼공사가 24일 슈퍼스타 가수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관장’ 영상(사진)을 공개했다.

광고 속 임영웅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부터 식사 후 운동과 공부에 노래 연습까지 하는 일상을 보낸다. 바쁜 시간 속에서 임영웅은 정관장을 챙기며 매일의 힘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신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으로 매일의 힘을 준비합니다”라고 광고 내내 잔잔하게 흐르는 내레이션은 광고 몰입도를 높이며 임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집중하게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정관장 임영웅 광고 영상은 TV를 비롯해 정관장 TV 유튜브, SNS,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광고영상과 온에어와 동시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관장’ 프로모션을 5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정관장 전국 매장 별 제품 구입 시, 임영웅 브로마이드와 포토카드 등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SPC, 말레이에 쉐이크쉑 1호점… 동남아 진출 속도

쿠알라룸푸르에 ‘디 익스체인지 TRX점’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 시너지 기대

쉐이크쉑 말레이시아 1호점 ‘디 익스체인지 TRX점’ /SPC그룹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쉐이크쉑 1호점 ‘디 익스체인지 TRX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SPC그룹은 2022년 미국 쉐이크쉑 엔터프라이즈와 ‘말레이시아 사업 운영에 관 계약’을 맺고, 쉐이크쉑의 말레이시아 사업운영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에서도 사업권을 획득해 10개의 쉐이크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SPC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과의 시너지를 일으켜나갈 계획이다.

쉐이크쉑 ‘디 익스체인지 TRX점’은 쿠알라룸프르의 금융·쇼핑 중심지인 TRX의 쇼핑몰 디 익스체인지 TRX몰 1층에 자리잡았다.

매장 내부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수종인 메란티 우드를 활용해 천정과 기둥 등을 꾸몄다. 말레이시아의 지역의 풍부한 공예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마치 나무로 짠 바구니의 모양 같은 무늬를 활용해 지역과의 유대기적인 연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 ‘수 이(Shu Yee)’의 벽화로 매장 외벽을 장식했다.

쉐이크쉑 디 익스체인지 TRX점에서는 말레이시아 국화인 히비스커스에서 영감을 받은 시그니처 쉐이크 ‘분가라야’를 선보인다. 히비스커스 젤리와 바닐라 프로즌 커스터드, 용과와 야자당, 코코넛 크럼블 등을 활용한 이 쉐이크는 말레이시아의 풍성한 요리 문화를 상징한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의 열대과일인 파인애플과 용과를 활용한 시그니처 콘크리트 ‘티알엑소피칼 파크’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한편, SPC그룹은 2016년 7월 서울에 한국 1호점을 선보인 이래 현재 총 2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점’은 세계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는 매장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도 2019년 첫 매장을 연 이래 오차드로드, 닐로드, 가든스바이더베이 등 핵심상권에 속속 문을 열며 1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말레이시아에는 2031년까지 10개 이상의 쉐이크쉑 매장을 열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CJ웰케어

엄선 소연골서 추출 콘드로이친 신제품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는 프리미엄 원료로 만든 ‘관절오만보 소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절오만보 소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은 엄선한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뮤코다당단백)을 함유하고 있다. 전통 보양음식인 도가니탕의 원리처럼 ‘물 추출 효소분해 공법’을 통해 깨끗하게 세척한 소 연골을 90도씨 물에 5시간 푹 끓여 콘드로이친 유효성분 1200㎎을 추출한 것이 특징이다.

콘드로이친은 관절과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로 연골의 마찰을 줄여 관절의 마모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 소 연골 추출 콘드로이친은 인체와 조직적으로 유사한 분자구조를 갖고 있으며, 인체적용 시험결과 관절 통증 및 연골 건강에 개선 효과가 있어 식약처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다.

또한, ‘관절오만보 소연골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은 BSE 프리 인증으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정제형으로 복용도 간편하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빼빼로 랜드마크 에디션’ 2종

외국인 관광객 대상 ‘K-기념품’

롯데웰푸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빼빼로 랜드마크 에디션’ 2종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인지도 갖춘 빼빼로에 한국의 대표 이미지를 디자인해 한국 여행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K-기념품이다.

빼빼로 랜드마크 에디션은 2개 타입으로 1번 타입은 전면 패키지에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광화문, 세종대왕 이미지 등을 삽입해 한국적인 멋을 살렸다. 한글 ‘ㄷㅐㅎㅏㄴㅁㅣㄴㄱㅜㄱ’도 배치해 한국 제품임을 강조했다.

2번 타입은 한국 전통 자개장 느낌의 디자인으로 광화문과 단청 꽃 문양을 넣어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후면 디자인은 세트를 구성하는 빼빼로 6종(오리지널, 아몬드, 초코필드, 초코쿠키, 크런키, 화이트쿠키)의 내용물 소개를 적용했다.

한국적인 선물을 찾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인 ‘빼빼로 랜드마크 에디션’은 롯데마트 외국인 특화 매장을 시작으로, 공항 내 편의점, 면세점, 토산품점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맞이 찾는 채널을 한정해 판매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진로’ 5주년… 19억병 판매

제로슈거 소주 부문 판매 1위 기록

하이트진로는 올해 출시 5주년을 맞은 두꺼비 소주 ‘진로’가 제로슈거 소주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진로는 지난 5년간 누적판매 19억병을 돌파(4월15일 기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초에 13병꼴로 판매된 것으로, 진로는 참이슬과 함께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지난해 1월 제로슈거 리뉴얼 단행 ▲소비자 니즈에 맞춘 팩 소주, 페트 소주 출시 ▲핑크라벨 등 한정판 에디션으로 젊은층 공략 ▲캐릭터 굿즈 출시 선도, 이슈화 ▲이종 업계와 다양한 협업 활동 등으로 소비자와 소통에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실제로, 진로는 주류 A사의 제로슈거 제품 매출액 대비 70% 높은 판매 차이로 제로슈거 소주 매출 부문 1위를 기록, 소주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특히 진로 출시와 함께 소주 업계 최초로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진행해 소비자 소통을 이어왔다. /신원선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선점 분주

〈흑색종 등에 쓰이는 면역항암제〉

지난해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 오는 2028년 물질특허 만료 예정

삼성바이오에피스, 'SB27' 임상 종근당, 셀트리온도 진출 주력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 기업들도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가 개발한 '키트루다'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면역세포 표면의 PD-1 단백질을 억제해 PD-1과 PD-1 수용체의 결합을 막음으로써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하는 기전을 갖췄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키트루다의 2023년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32조5000억원으로, 키트루다는 지난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또 키트루다는 2023년 매분기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1분기 57억9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2분기에는 62억7100만 달러로 19%, 3분기에는 63억3800만 달러로 17%, 4분기에는 66억800만 달러로 21% 증가하는 등 키트루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로 개발되고 있는 SB27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11번째 파이프라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는 앞서 지난 2018년, 출시 4년 만에 72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려 글로벌 연간 매출 순위 5위에 진입한 바 있다. 이후 키트루다는 2019년 100억 달러, 2022년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매출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키트루다'는 오는 2028년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SB27'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 'SB27'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4개 국가에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616명을 모집해 'SB27'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4개 국가에서 SB27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 진행하는 '오버랩' 전략을 전개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을 통해 투약 용량이 정해져 있어 임상 2상을 건너뛸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 업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만료 시기를 정조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종근당도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2022년 9월 싱가포르 제약회사 파보렉스로부터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국내 독점 공급 및 판매권을 도입해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제형 개발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램시마SC를 통해 제형 변경 기술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제약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2023년 기준, 키트루다의 매출이 머크 전체 매출의 41.6%를 차지하고 있어 머크도 키트루다의 특허 방어 전략을 적극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머크는 키트루다 적응증을 계속 확대해 현재 미국에서 18개 암종, 38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머크는 키트루다의 기존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미국 머크에 자체 보유 기술 및 제품 사용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알테오젠은 2020년 머크와 인간 히알루로다니제 원천 기술(ALT-B4)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기술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제약

미국산 과일 농축액 담은 썬키스트 오렌지·자몽소다

광동제약이 탄산 음료 시장에 도전한다.

광동제약은 '썬키스트 오렌지 소다'와 '썬키스트 자몽 소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썬키스트 오렌지와 자몽 소다는 각각 미국산 오렌지 농축액과 자몽 농축액을 함유한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시트러스 과일 특유의 상큼함과 탄산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신제품은 355ml 캔, 600ml 페트, 1.5L 페트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고 오렌지 소다 600ml 제품은 전국 주요 편의점에 진열된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비건 선케어 브랜드 '딘시' 앰버서더에 배우 안선영 선정

유한양행이 출시한 고급 비건 선케어 브랜드 '딘시'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딘시는 브랜드 앰버서더로 배우 겸 방송인 안선영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딘시에 따르면 안선영은 TV홈쇼핑에서 1조 매출 신화를 달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딘시는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구축한 안선영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딘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3050세대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NS홈쇼핑

스튜디오에 미디어월 도입 무대제작 폐기물 줄인다

NS홈쇼핑은 자사의 스튜디오 S150에 길이24m, 높이 3.4m 크기의 미디어월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미디어월은 리얼커브드 1.56㎜ LED 화면에 스튜디오를 가상의 이미지로 확장해 사용하는 확장현실(XR)을 구현할 수 있다.

NS홈쇼핑 측은 무대 제작의 폐기물을 줄여 친환경적인 스튜디오 운영이 가능하고, XR기술로 효과적인 상품소개와 더불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극대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월 컨트롤을 위한 미디어서버는 실시간 데이터 연동 및 원격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홈쇼핑 방송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성능 개량된 버전으로, 업계와 국내 스튜디오에 미디어월이 적용된 이후 혁신적으로 진보된 사양의 미디어월 운영시스템이다.

미디어월과 원격제어 시스템 활용은 소수의 운영인력으로 무대 세팅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NS홈쇼핑의 경우 식품 편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 중 조리 시 발생하는 열과 습기, 염분, 기름 등에 취약한 미디어월의 특성에 따라 스튜디오 운영 효율을 위한 도입과 반영 적기 시점 등의 고려 사항이 많았다. 이번 미디어월 도입으로 NS홈쇼핑은 도입 이전 발생했던 스튜디오(S150) 무대 폐기물을 비용 기준으로 연간 83.33%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세트 제작 및 철거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애경산업, 美 유통채널·신규고객 확보 '박차'

유통 플랫폼 실리콘투와 업무협약 美에 '에이지투웨니스' 본격 선봬 아마존서 시작… 모이다에도 입점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미국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 확장에 나선다.

애경산업은 지난 23일 서울 애경산업 본사에서 글로벌 K뷰티 유통 플랫폼 실리콘투와 '미국 화장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K뷰티의 세계화를 위한 해법을 제공하는 실리콘투와 협업해 미국 시장 내 유통 채널 확대, 신규 고객 확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애경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에이지투웨니스(AGE20's)'를 본격 선보인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에이지투웨니스는 애경산업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 앞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K뷰티의 글로벌 입지를 구축해 왔다.

지난 23일 서울 애경산업 본사에서 열린 '미국 화장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이사(왼쪽)와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애경산업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애경산업은 미국 최대 온라인 채널 아마존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에이지투웨니스는 오는 5월 실리콘투 미국 1호 오프라인 채널 '모이다'에도 입점한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은 제품 현지화 전략을 적극 펼친다. 미국 시장에서 에이지투웨니스 대표 제품인 '시그니처 에센스 팩트 인텐스 커버' 6종을 출시하는 가운데, 이 중 3가지 호수는 미국 소비자 피부색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애경산업은 올해 하반기에는 선케어 제품군에서 미국 전용 상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나라셀라, '와인픽스 센텀점' 이전 오픈

선착순 사은품 증정 행사 진행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부산 해운대역 앞에 있던 와인픽스 부산점을 센텀시티에 위치한 트럼프월드센텀으로 이전해 '와인픽스 센텀점'을 새롭게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와인픽스 센텀점'은 나라셀라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역과 벡스코역에서 모두 도보로 10분내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 매장 내에는 온도가 중요한 화이트 와인을 구매 직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칠링존'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용량의 미니어쳐 섹션을 마련해 타 매장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와인픽스 센텀점'은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1300여종의 주류 관련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오픈 행사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는 ▲위스키 발베니 21년 포트 우드 ▲산토리 야마자키 12년 ▲샤또 무똥 로칠드 2019 ▲샤또 딸보 2019를 선착순 한정 판매하고, 매주 산토리 가쿠빈, 맥캘란 12년 쉐리 오크 등 한정 특가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 센텀시티에 오픈한 '와인픽스 센텀점' /나라셀라

나라셀라는 '센텀점' 오픈을 기념해 선착순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선착순 100명에게 와인픽스 리유저블컵을 선물로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제약

어린이용 장 건강식품 출시

동아제약은 어린이 장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미니막스 랩 장 솔루션'에서 '베리맛'과 '요구르트맛'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이번 신제품에서 설탕과 아스타팜, 수크랄로스와 같이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배제하고 과일농축분말과 천연향을 부원료로 활용해 베리맛과 요쿠르트맛을 구현했다.

해당 제품은 입에서 녹는 분말 제형이다. 분말 섭취가 어려운 아이들은 물이나 요거트에 섞어 섭취할 수 있다.

아울러 미니막스 랩 장 솔루션은 장 속 미생물 생태계와 공생하는 동아제약의 EPS 특허 유산균을 함유한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뛰어난 장부착능, 내산성, 내담즙성, 내췌장액성 등을 갖춘 EPS 균주는 유익균이 아이의 장까지 안전하게 정착해 증식하도록 돕고 유해균은 억제한다. /이청하 기자

KYO WON 교원투어
여행이지
비행, 호텔, 현지 맛집, 액티비티, 쇼핑
“여행은 하나만 잘 해서는 안 된다”
잘 만든 패키지 여행을 만났다
여행이지 전문가가 직접 개발한 퀄리티 있는 패키지 여행
항공권도 역시 여행이지
WEB AWARD 22 INNOVATOR
2022 웹어워드코리아 문화/레포츠 부문 대상 수상
주최_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주관_아이어워즈위원회
수상대상_(주)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X 파인너츠
2024 KBHF 대한민국브랜드 명예의전당
2023-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여행서비스 부문 1위 2년 연속 수상
주최_산업정책연구원 | 후원_산업통상자원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중앙일보
수상대상_(주)교원투어 여행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거래소, 부산지역 이재민 구호키트 제작

한국거래소는 24일 오후 2시 KRX 부산본사 6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이재민 구호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부산지역에 재해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이 임시거처에서 사용할 긴급 생필품 구호 키트 1000개 선제작해 재난 발생 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후원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 동반성장 '앞장'

현대엘리베이터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2024년도 제1호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영국엘리베이터 김영국 대표, 동반성장위원회 오영교 위원장,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별무리' 오픈

스타벅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4번째 재능기부에 나선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예산군에 위치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내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카페 별무리'를 오픈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가운데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흥국생명, 지역 취약계층 아동 '핑크박스' 나눔

흥국생명은 지난 23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핑크박스'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2024년 흥국생명 신입사원 10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에게 나눠줄 가죽 필통을 직접 제작하고 학용품과 함께 핑크박스를 포장했다. /흥국생명

SSG닷컴

최정 선수 '홈런 신기록' 이벤트

SSG닷컴은 KBO리그 역대 최다 홈런 신기록인 SSG랜더스 최정 선수의 468번째 홈런 기록 시점에 맞춰 자체 SNS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쓱닷컴은 최정 선수가 신기록을 달성한 다음날 정오부터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SNS 댓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축하 댓글을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468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1등에게는 SSG머니 468만원을 증정하며 이외에도 최정 선수 사인 유니폼 및 사인 야구공,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준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전자-국립재활원, 가전제품 접근성 개선 MOU

"'컴포트 키트' 업그레이드… 누구나 손쉽게 가전 사용"

차세대 컴포트 키트 공동 개발
보조기기 연구 사업 등 협업

LG전자가 국립재활원과 함께 나이나 장애 유무와 상관 없이 누구나 손쉽게 가전을 사용하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LG전자는 국립재활원과 함께 '가전제품 접근성 개선 활동 및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립재활원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이향은 LG전자 H&A CX담당과 국립재활원 강윤구 원장 등이 참석한다.

LG전자와 국립재활원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가 가전을 사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더욱 편리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근력이 부족하거나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지체 장애 고객이냉장고 도어를 쉽게 여닫도록 설계된 '이지핸들'을 사용하는 모습. /LG전자

LG전자는 올 3월 누구나 손쉽게 가전을 사용하도록 돕는 'LG 컴포트 키트(Comfort Kit)'를 출시한 바 있다. LG전자는 국립재활원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과 이번 협약으로 LG 컴포트 키트의 차세대 버전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국립재활원에서 진행하는 보조기기 연구사업과 연계한 협업도 진행한다.

LG 컴포트 키트는 장애인 자문단을 통해 가전제품 사용 중 겪게 되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를 사용자 유형 및 제품별로 분석해 기존 제품에 탈·부착해 접근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개선 장치다.

컴포트 키트는 ▲근력이 부족하거나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지체 장애 고객이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도어를 쉽게 여닫도록 설계된 '이지핸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스타일러 무빙 행어에 옷을 걸 수 있는 '이지행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실리콘 '에어컨 리모컨 커버' 등 7종이 출시됐다.

이향은 LG전자 H&A CX담당은 "국립재활원과 협업을 통해 컴포트 키트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든 고객이 더 편리하게 가전을 사용하도록 할 것"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중기부, 8000억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본격 조성

출범식 개최… 연내 5000억 출자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 될 것"

정부가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5000억원을 출자해 약 8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본격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 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이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로 출자하지만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가 30%, 민간이 70%를 각각 출자한다.

펀드 출범 첫 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한다. 나머지 기업도 20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면서 "더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두나무, 지난해 1.8만kg 탄소 절감

'나두-으쓱' 캠페인 성과 발표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지난 1년간 진행한 임직원 ESG 캠페인 '나두-으쓱(ESG) 캠페인'의 성과를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전개된 나두-으쓱 캠페인을 통해 두나무는 약 1만 8000kg의 탄소를 절감하는 데 성공했으며, 143만 리터의 물 절약 효과도 거뒀다.

두나무의 나두-으쓱 캠페인은 일상 속 탄소 중립·사회 공헌 실천 문화 정착 및 ESG 가치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그간 임직원 물품·지식 재능 기부, 나무 심기 봉사, 계단 오르기 챌린지 등 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며 누적 참여 임직원 수는 986명에 달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모델들이 SK ICT 패밀리사 차원 헌혈 릴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SKT

SKT, 창사 40주년 기념 릴레이 헌혈

SK ICT 패밀리사 참여

SK텔레콤은 창사 40주년을 기념해 국내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SK 정보통신기술(ICT) 패밀리사 차원에서 40일 동안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캠페인에는 SKT를 시작으로 SK스퀘어, SK쉴더스, SK오앤에스 등 SK ICT 패밀리사가 참여한다.

이날 서울 중구 SK T타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40일 간 전국 25개 사옥에서 SKT와 SK ICT 패밀리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인사

◆ **한국거래소**◇부서장 신규 보임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이방순 △경영지원본부 IT관리부장 장정희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최철호 △유가증권시장본부 디지털사업부장 안길현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장 이연숙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신영철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정종섭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장 김홍주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장 김창환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손승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황은선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부장 윤영기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정상현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장 이성훈

분양가 상한제의 경제학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서울의 로또청약에 대한 뉴스는 부동산 경기를 타지 않는다. 아파트에 당첨되자마자 주변시세에 비해 수억씩 이득을 보는 로또청약의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자연스럽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낮추어 놓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이는 새 집을 싸게 팔면 집값이 내려가고 투기가 억제될 것이라는 의도이다.

가격이 시세보다 싸면 당연히 경쟁률이 치솟는다. 그래서 몰려드는 손님들 중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서 누가 더 새집이 급한지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에 활약을 해줘야 할 건설사나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분양가상한제는 큰 걸림돌이다. 어떤 제화든 공급자가 가격표를 내걸고 안 팔리면 스스로 가격을 낮추기 마련인데, 그 가격을 국가에서 정해버렸다. 생산자가 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되면 사업 의지가 확 꺾이게 된다. 가격을 떠나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가령 어느 해 마늘이 흉작이어서 가격이 폭등했다고 치자. 이 소식이 퍼지면 다른 작물을 농사짓는 농부들까지 앞다퉈 마늘을 심게 된다. 마늘의 생육 기간은 불과 수개월이기 때문에 가격은 금세 안정된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물건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생산설비를 늘리고 인력의 고용과 양성이 쉬운 경우, 가격이 올라도 금방 다시 안정된다. 이러한 상품들을 경제용어로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라고 표현한다.

몇년 전 경기 북부 지역에 심각한 수해가 있었다. 당시 인근 소도시에 집집마다 막힌 하수구를 뚫는 배관공들이 호황을 맞았다. 평소 수리비용에 비해, 그해 물난리 직후 수리비가 많게는 다섯 배 까지 올랐다고 한다. 결국은 해당 지자체에서 칼을 빼 들었다. 일정 가격 이상을 받는 배관공들은 제보를 받아서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물론 배관공들이 생업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활약이 다급한 시기였음에도, 업체들의 처리 건수가 평소보다 그다지 늘지 않았고 작업 성과도 상당히 떨어졌다.

그때 만약 지자체에서 배관공의 수리비를 규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배관 출장수리와 같은 품목은 '공급이 매우 탄력적'인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라도 이동하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다. 아마 상당히 먼 도시의 기술자들까지도 장비를 챙겨서 몰려왔을 것이고 자율 경쟁을 통해서 수리비도, 수해로 인한 다급한 상황도 곧 안정되었을 것이다.

아파트는 흔히 이러한 재화 중에서 공급이 가장 '비탄력적'이다. 배관공이나 마늘 농사처럼 가격이 올랐을 때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행정업무에만 짧아도 수년이 걸리며,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다시 수년이 걸린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이다. 어떤 면에서는 강남과 용산에 이미 집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집값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강남구 일대는 호가가 오르고 있다. 그 동력이 '국민 정서'로부터, 또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로부터 나온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시골쥐'도 힘든 삶

기자 수첩
김정산 〈금융부〉

아이소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동화 작가다. 모두가 아는 '이솝우화'의 저자다. 그의 작품 중에는 '시골쥐와 도시쥐'가 있다. 고즈넉한 시골에 살던 쥐가 도시에 사는 친구쥐를 만난 이야기로 기억한다.

시골쥐는 처음 도시의 풍경을 맞닥뜨리곤 깜짝 놀란다. 다채로운 음식과 놀거리들이 넘쳐나서다. 그러나 도시에는 수많은 인간과 고양이 등 위협적인 존재들이 포진했다. 결국 시골쥐는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아이소포스는 동화를 읽는 아이들에게 불안한 풍요로움보다 행복한 빈곤이 낫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해당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족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쉽지만 이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공정한 경합이 이뤄질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서민들 살기 참 팍팍하다. 돈 몇 푼이 아쉬워졌다.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도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저신용자는 한 푼이 아쉬워 저축은행 담보대출을 찾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카드사 9곳의 카드론 잔액은 39조4821억원이다. 사상 최대치다. 누적잔액 40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다. 매달 이자만 460억원가량 불어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금리는 이보다도 더 높다.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매달 부담할 이자는 더 높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중금리대출 규모를 확 줄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비 42.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카드론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말한다. 불법사금융은 더 잔인해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단속과 추징·징수를 단행하고 있지만 길거리에는 '일수대출' 명함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중저신용자주 흡수를 분담해야 한다. 시골쥐든 도시쥐든 자격이 된다면 자금 융통이 가능해야 한다. 흥청망청 과시욕에 빠진 경우를 논외로 치더라도 성실히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재기할 발판은 견고해야 한다.

/kimsan119@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5일 (음 3월 1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몰두하다 보면 그만큼 행복도 곁에 있다. **48년생** 자녀가 인내심이 부족해도 기다려줘야. **60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 **72년생** 녹슬어 버리는 것보다 닳아 없어지는 편이 낫다. **84년생** 운동을 꾸준히 하자

소 **37년생** 실패자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한다. **49년생**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타개할 수 있다. **61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73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85년생** 사람의 정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호랑이 **38년생** 고향을 찾는 날. **50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은 최선이다. **62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을 피하라. **74년생**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도 좋다. **86년생**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는 인제 그만.

토끼 **39년생** 자식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니 기쁘다. **51년생** 시작이 좋으니 이익이 증대. **63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려서 잠시 지체. **75년생**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정의라고 볼 수 없다. **87년생**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약속에서 시작.

용 **40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니 마음이 중요. **52년생** 기다리던 승진 소식. **64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7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88년생**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자신의 복.

뱀 **41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5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65년생**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 **77년생** 공부하는데 인내. **89년생** 시기가 따르면 어진 벗과 친할 수 없다.

말 **42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54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그리움이다. **66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도 상쾌. **78년생** 거리의 질서를 위해 안전운전하자. **90년생** 재미 삼아 한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

양 **43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다. **55년생** 보잘것없어도 만족해야 미래 좋은 자리가 주어진다. **67년생** 흔들리지 말고 전진. **7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91년생** 땅에서 자라나는 풀들도 각기 이름이 있다는데.

원숭이 **44년생** 우물가에 두레박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답답. **56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 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잡아라. **68년생** 숫자 3이 행운을 준다. **80년생** 직장에서 내준 사명을 완수하자. **92년생** 저축을 위해서 확고부동한 기준을 갖도록.

닭 **45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57년생**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손 안에. **69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마라. **81년생** 소문만 듣고 남의 말을 옮기지 않도록. **93년생** 오늘 하루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임을.

개 **46년생** 가족의 행복과 평안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58년생** 새로운 소식을 얻게 되니 신문과 뉴스를 잘 살펴라. **7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된다. **82년생** 사람을 의심하려면 한이 없다. **94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돼지 **47년생** 마음 가는 대로 여행을 떠나보자. **59년생** 중심을 잘 잡고 일을 처리해야 타인의 원망을 듣지 않는다. **71년생** 급한 마음을 달래야 한다. **83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칭찬을. **95년생** 물질로 소중한 친구가 멀어질까 노심초사이다.

김상회의 四季

시에스타

불면증 얘기를 하고 보니 '시에스타'라는 예쁜 스페인 단어가 생각난다. 시에스타란 낮이 더운 그리스나 이탈리아 및 스페인을 비롯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이른 오후에 자는 낮잠 또는 낮잠 자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여섯 번째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틀 무렵부터 정오까지의 시간인 6시간이 지나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여섯 번째 시간'(hora sexta)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시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오후1~3시 30분 그리스에서는 오후2~4시까지란다.

이 풍습에 대한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에어콘이나 선풍기도 없던 시대에 땡볕이 강한 한낮에 밭일이나 여타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능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건강이 훼손되기까지 할 것이라는 짐작이다. 한때 스페인에서는 업무 생산성을 고려하여 시에스타를 없앤 적도 있었단다. 근대화된 시대에 한낮의 낮잠은 일종의 게으름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원기를 회복하고 지적·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인간의 생리학적 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살펴보면 꼭 시에스타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낮잠을 재우는 곳이 있단다. 식곤증도 그러하겠지만 어린이들은 잠이 곧 성장발육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도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점심 후 1시간 정도 오침을 부여하기도 한다는데 더워지는 6월 하순부터 한여름인 8월 하순까지란다. 스페인의 경우 국민의 약18%가 아직도 시에스타를 지키고 있으니 완전 폐지는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한다. 시에스타 시간대에도 계속 일하면서 더 수입을 늘리려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데 생활의 팍팍함은 낮잠조차 허락지 못하는 듯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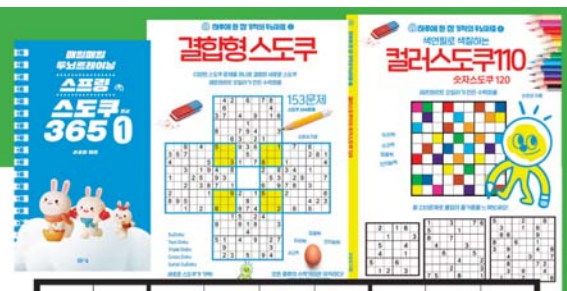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2		3		5		7
			5			3		
	3		2	6		9		
7			9	5				2
6								5
5				2	3			6
		3		4	2		9	
		4			7			
9		6		8		2	4	

3			2	6			1	4
				8				
	8				7		2	1
				5		6		2
7	6			2			8	9
2		9		1				
8	9		6				4	
				9				
6	1			4	2			3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7	5	2	6	9	8	1	4
9	2	4	1	8	5	7	3	6
5	8	6	4	3	7	9	2	1
1	4	3	9	5	8	6	7	2
7	6	1	5	2	4	3	8	9
2	3	9	7	1	6	4	5	8
8	9	2	6	7	3	1	4	5
4	5	8	3	9	1	2	6	7
6	1	7	8	4	2	5	9	3

4	9	2	8	3	1	5	6	7
2	6	1	5	7	4	3	8	9
1	3	5	2	6	8	9	7	4
7	1	8	9	5	6	4	3	2
6	4	7	3	1	9	8	2	5
5	8	9	4	2	3	7	1	6
8	5	3	7	4	2	6	9	1
3	2	4	6	9	7	1	5	8
9	7	6	1	8	5	2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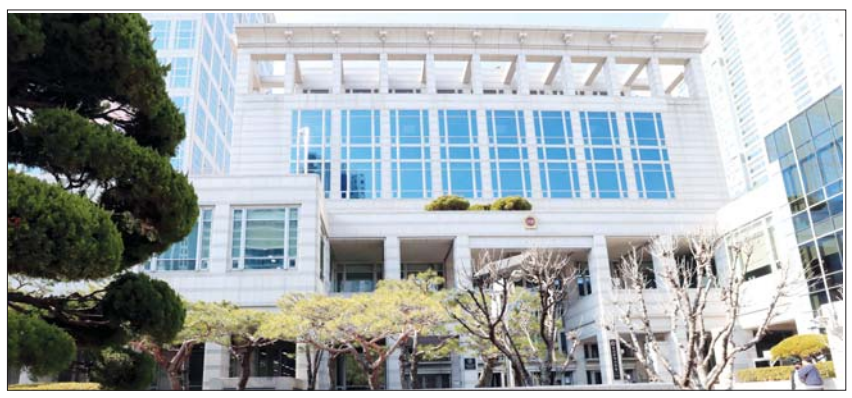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2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산창업청, 창업투자원으로 변경… 시의회 "행정·시간 낭비"

행안부, '청' 사용 지양 권고
"굳이 새 출연기관 만들 필요 없어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와 안 맞아"


부산시의회

부산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부산창업청이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으로 대체된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23일 제320차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설명에서 부산창업청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으로 변경됨을 알렸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유사 명칭인 '청' 사용을 지양하라고 권고하고 기관 설립 목적인 '기술 창업'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기관명에 표시하기 위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기획재경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배영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지속적으로 부산시의회가 '부산창업청'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시는 지속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산기술창업투자원으로 변경하면 굳이 새롭게 출연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25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21개로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했다.

배 의원은 이는 부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타트업·벤처 기술 및 투자 관련 기능을 모아서 별도의 출연기관 보다는 부산경제진흥원 등에 모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시에서는 투자청을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다고 했기에 의회는 기다렸지만, 결국 돌고 돌아 행정력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해서 새롭게 출연기관을 만드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정책관은 "부산시의 창업 기능이 여러 출자·출연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고 핵심인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창업청을 만들기로 했다"며 "청에서 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신안군, '순환경제도시' 조성 앞장

'플라스틱 제로 2050' 선포식
친환경 소재社 그리코와 협약

플라스틱 제로 2050 선포식 및 협약식 /신안군

신안군은 지난 23일 군청에서 정부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정책에 따른 선제 대응의 하나로 '순환경제도시, 신안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은 신안군 내 농수산 부산물 및 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보급으로 205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 처분에 있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자연순환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안군은 이와 관련 자연순환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 그리코(주식회사 라이스팜, 대표 박재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코(Grico)는 식량으로 사용 불가한 쌀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협약의 주 내용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 제품 생산단지 설립과 개발 제품의 산업화에, 상호 협력 및 추진으로 신안군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천연자원 기반의 자연순환형 플랫폼 구축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해남군, 땅끝으로 국도1호선 변경 추진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준비 중

해남군이 국도1호선 기점을 땅끝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도1호선은 전남 목포시에서 판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시까지를 잇는 대한민국의 중심 종축 국도로, 현재 기점은 목포 신외항에 위치한 목포대교이다.

국도1호선 기점은 1911년 개통 당시 목포 유달산 아래 과거 일본 영사관 앞 위치에서 2012년 목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목포대교 종점인 충무동 고하도로 시작점이 변경된 바 있다.

군은 국도1호선의 기점을 땅끝까지 연장함으로써 땅끝해남에 대한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의의를 드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점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으로,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 기점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남군의 국도1호선 기점 변경 추진은 해남을 잇는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이 속도를 높이면서 이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다.

광주~해남~완도간 고속도로는 지난달 13일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약속받으며 사업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광주에서 강진 구간은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3%에 이르고 있다. 강진~해남~완도 구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성 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경 착공할 예정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日·中 연휴에 부산 관광객 3만여명 전망

日 골든위크, 中 노동절 맞아

부산관광공사는 일본 골든위크(4월27일~5월6일)와 중국 노동절(5월1~5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3만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비수기(1~2월)에 방문하는 월 방문객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는 4~5월과 맞물려 부산 방문객들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 항공과 호텔 예약률은 평소보다 3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면세점과 백화점 업계는 구매 고객 대상 바우처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산시와 공사는 이번 골든위크와 노동절을 위해 각종OTA프로모션, 주요 여행사 세일즈콜 및 한국관광공사K-관광 로드쇼에 참가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이도식기자

'50주년' 창원국가산단, DX로 비전 그린다

기계산업 필두 주요 업종 성장 견인

반세기동안 원전·방산으로 대표되는 국내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였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려가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74년 4월 출범한 창원국가산단은 50주년을 맞았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1973년 1월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따라 기계·방위 산업 육성을 목표로 이듬해 조성됐다. 창원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경제 성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50년 동안 기계산업을 필두로 원전, 방산,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 성장을 견인해왔다.

원전주기기 제작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인 내연기관, 터빈제조업이 다수 분포돼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 806곳 중 170곳이 창원국가산단에 모여있다.

국내 최대 방산 집적지인 창원국가산단은 K-2 전차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등의 생산 거점이기도 하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지역 이모저모

문경시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 개최

문경시의 '2024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이 오는 27~28일 1회차, 5월 3~5일 2회차를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한다.

문경 친환경 캠핑 페스티벌은 최근 인기인 캠핑, 트레킹 등 레저 관광과 사회 전반의 키워드인 '친환경'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체험 관광으로 기획되었으며, 올해는 문경시 대표 축제인 문경찻사발축제와 연계하여 더욱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문경(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의령군
의령4·26위령제, 추모식 행사

42년의 한을 달래줄 역사적인 첫 추념 행사가 경남 의령군에서 26일 오전 10시 의령4·26추모공원에서 군 주관 '의령4·26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가 열린다.

이른바 '우 순경 사건'이라 불리는 궁류 총기 사건은 경찰로 근무하던 우범곤 순경이 1982년 4월 26일 마을 주민에게 무차별 총기를 난사에 주민 56명을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건 발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위령제가 군 주최로 개최된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여수시
통제영길놀이에 3000여명 참여

여수거북선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통제영길놀이'에 역대 최대 출연진인 3000여명이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제영 길놀이'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도 해상을 점령한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했던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첫 출정해 승리를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다.

축제 첫 날인 5월 3일 오후 6시부터, 시민회관에서 시작해 중앙동 이순신 광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순천시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는 이번 재지정으로 2017년부터 5회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라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웰니스 콘텐츠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선정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캐나다 외교차관 면담…경제·안보 실질 협력 방안 논의 /사진 뉴시스

▲ 테슬라, 캘리포니아·텍사스서 약 6000명 감원 예고

▲ 꼬리 부딪히더니 '쿵'…말레이시아 軍 헬기 추락

▲ 日후쿠시마 제1 원전 정전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 美트럼프, 뉴욕서 日아소와 회동…"북한·중국 도전 등 논의" /사진 뉴시스

▲ 트럼프, 34년만 엔화 약세에…미국에 "재앙" 비판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5420호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K-치킨
해외서 날았다
작년 매출 56%↑
L1

Life

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속도
L2

내년 의대생 증원규모 결정 늦춰져 대교협 "모집인원 5월 말까지 발표"

대교협, 5월 초중순까지 제출 배려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결정
정부 증원분보다 규모 축소 될 것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23일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해 대학들이 제출해야 하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 사항을 당초 계획대로 4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있지만, 다음 달 초순까지 제출해도 이를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24일 메트로신문에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대학이 학내 사정에 따라 늦어질 경우 5월 초중순까지 받아 변경 심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8월 대교협이 공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은 '올해 4월 말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5월 말까지 심의·조정 완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정정 사항을 원칙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은 변함 없다. 하지만, 내년 입시 사안을 정정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학들의 여건을 고려해 내달 초순까지는 제출을 받겠다는 게 대교협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 입시 선발 인원을 변경하려면 절차상 먼저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학내 일정상 4월말까지 불가능한 곳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더라도 대교협은 기존과 같이 5월 말까지는 대입 시행계획 변경 심사 및 승인을 마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 선발 규모를 자율 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2000명으로, 대학 결정에 따라 1000명까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비수도권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내년도 모집인원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감축을 속속 결정하고 있지만, 사립대는 여전히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의대를 보유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는 이번 정부 증원 정책에서 의대 정원이 국립대처럼 많이 늘지 않아 아직 다른 대학들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숏폼, 굿즈 제작… 온라인 무료강좌 선정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케이무크'
디지털, 교양 등 다양한 강의 제공

온라인에서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 '케이무크'에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부터 굿즈 창업 등의 강좌가 새로 개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4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발표했다.

2015년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는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됐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디지털 교양 분야에는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 '놀라운 증명'(CJ ENM) 등이 선정됐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를 비롯해,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노인 3명 중 1명 "노후준비 못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 비율 15%

경기도가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하고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 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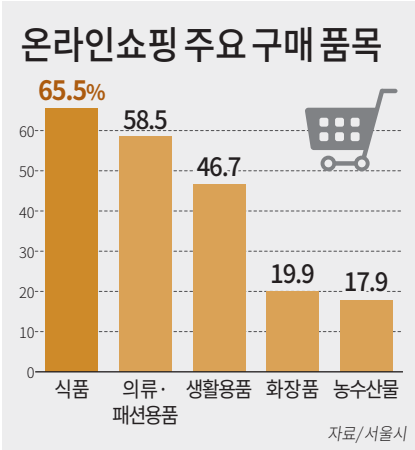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온라인으로 옷보다 '식품' 더 많이 샀다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 이용
사기·편취 피해 2.7배 증가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 금액은 평균 6만65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최저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편취 피해가 2.7배가량 증가했고, 피해 품목은 의류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24일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가 작년 12월 18~27일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000명(지역불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65.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류·패션용품(58.5%), 생활용품(46.7%), 화장품(19.9%), 농수산물(17.9%)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식품이 의류·패션용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며 "최근 식품 전문몰에 배달앱까지 당일·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6500원이었다. 쇼핑횟수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쇼핑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부분은 ▲결제 편리성·안정성(81.2%) ▲가격(79.5%) ▲배송 안정성과 배송비 적정성(76.5%)이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47.6%) ▲고객센터 상담처리(53.9%) ▲판매자 및 제품정보 표시(56.7%)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이날 시는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작년 센터에 들어온 상담은 총 6460건으로 전년 8723건 대비 26% 감소했으나, 사기·편취피해(1149건)와 예매·예약서비스 피해(364건)는 각각 2.7배, 2.4배 급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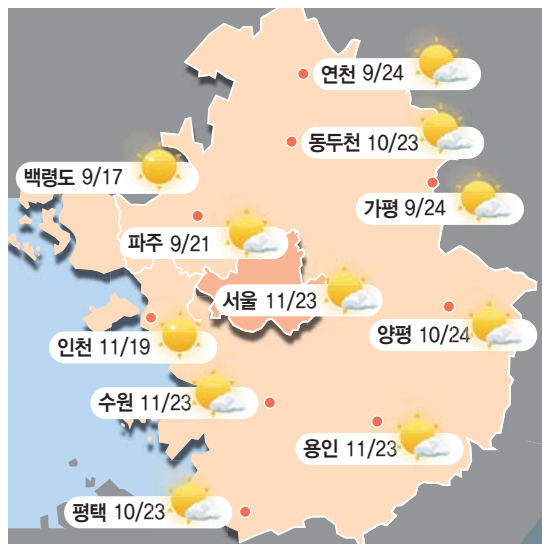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44 | 해짐 / 19:17

4월 25일(木)
음력 : 3월 17일

수도권 날씨
11 ~ 23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현수 야구선수협회장 "수면제 대리처방, 반인륜적 불법 행위"
▲13일 만에 멀티히트 김하성, 2안타 1도루 1득점 활약 /사진 뉴시스

▲악플러에 칼 빼든 프로축구선수협회 …"선처 없다"
▲'밉상이 영웅으로' 롯데 황성빈 "잘하고 있다는 말, 크게 와 닿아"

▲패하면 올림픽 탈락…황선홍 vs 신태용 '단두대 매치' /사진 뉴시스
▲KIA 외인 투수 잔혹사 끝?…동반 상승하는 크로우·네일

AI에 바라는 게 있나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면 좋겠네!"
Q.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A. 그렇지! 하고 싶은 일 더 맘껏 하려고
성수동 '요가쌤'
64세 최영아 님
LG의 AI와 바이오 기술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LG